

위험한 여정:

중국과 제 3 국에 체류중인 북한사람들의 참상

아시아 보고서 N°122 - 2006 년 10 월 26 일

## 목 차

연구 요약 및 권고 사항 .....	i
<b>I. 서론 .....</b>	<b>1</b>
<b>II. 북한(WORKERS' PARADISE)을 떠나며.....</b>	<b>3</b>
A. 국경지역 .....	4
B. 이주 압박.....	6
C. 국경 넘어가기.....	7
<b>III. 지하조직화 .....</b>	<b>9</b>
A. 단속 .....	9
B. 중국 국경지역의 변화 .....	9
C. 변화하는 내·외부 요인 .....	11
<b>IV. 새로운 패턴과 새로운 네트워크 .....</b>	<b>14</b>
A. 단기 월경자들 .....	14
B. 인신매매와 농촌 신부 .....	18
C. 지하철도 (UNDERGROUND RAILROAD) .....	19
1. 지름길: 담을 넘거나 정문을 통과하여 .....	21
2. 어려운 통과 .....	24
D. 강제송환 .....	25
<b>V. 중국을 떠나며 .....</b>	<b>27</b>
A. 북쪽경로 .....	27
1. 몽골 .....	27
2. 러시아 .....	28
B. 남쪽경로 .....	29
1. 베트남 .....	29
2. 버마 (미얀마) .....	30
3. 라오스 .....	30
4. 태국 .....	31
<b>VI. 새터 찾기 (FINDING A NEW HOME).....</b>	<b>37</b>
A. 남한 .....	37
B. 미국 .....	39
C. 유럽 .....	41

D.	일본 .....	41
<b>VII.</b>	<b>결론 .....</b>	<b>42</b>
A.	망명하기 .....	43
B.	중국에 숨 실 공간 마련하기.....	44
<b>부록</b>		
A.	북한 지도.....	45
B.	동아시아 지도 .....	46
C.	난민법과 UNHCR 사무소.....	47

## 위험한 여정: 중국과 제 3국에 체류 중인 북한사람들의 참상

### 연구 요약 및 권고사항

수십만명의 북한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왔다.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문제는 무관심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인도주의에의 도전이 되고 있다. 단지 9,000 명이 조금 넘는 탈북자들이 안전을 확보했다. 대부분은 남한에, 그리고 일부는 일본, 유럽, 미국에 정착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인근국가에서 단속을 피하고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기 위해 숨어 지내고 있고, 인권유린과 착취에 취약한 상태에 있다.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이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거나 교수형을 당할 수도 있다. 북한 핵실험재제를 논의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남한정부는 북한이 위험한 핵정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주저해 왔다. 왜냐하면 강도 높은 재제로 북한의 경제가 붕괴되면 중국과 인근국가로의 탈북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북한보다는 중국정부가 관련정책을 변경할 것이라는 더 큰 기대가 있고 관련있는 정부들은 월경자(越境者)들의 처지를 개선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북한 경제부흥을 겨냥한 2006년 10월 9일의 핵실험에 강경대응을 하지 않고서라도 내부사정은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량 기근사태가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 지난해 북한정부는 1990년대에 붕괴되었던 공공식량 배급제도를 재도입했고 국제인도주의지원을 거

부했다. 대신 모니터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발 원조를 요청했다. 현재 활동중인 원조프로그램이 기금을 확보하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름 홍수는 곡식과 기간산업에 피해를 입혔다.

탈북자가 노동자들의 천국(the worker's para-dise)인 북한을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 적 억압보다는 굶주림과 회생 불가능한 경제사정 때문이다. 월경의 주된 장애요인은 국경지역의 물리적 장벽이나 삼엄한 경계가 아니라 부족한 정보, 중국 또는 북한 경비대의 체포에 대한 공포, 불충분한 재정때문이다. 중국당국은 숨어 지내는 탈북자들을 집요하게 수색함으로써 국경경비대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있다. 2006년 10월 중국당국은 국경을 따라 담장을 치고 월경자들을 찾아 체포하기 위해 접경지역을 감시하기 시작 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북한사람들의 의지는 더욱 커지고 있고 남한에 귀국할 탈북자가 올해 사상 최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탈출을 결심하는데 작용하는 외부요인은 바로 중국과 남한에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들이다. 남한에 살고 있는 약 9,000명의 탈북자들이 그들 가족이 탈출할 수 있도록 자본과 정보를 보낼 수 있다. 밀반입된 남한비디오, 미국과 남한 라디오방송과 입소문을 통해 매우 적지만 의미있는 정보들이 북한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것들을 접하는 북한사람들은 새로운 사상과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는 공식적인 망명자의 삶을 위해 중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정부가 그들이 지내기에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수천킬로미터를 여행할 수 밖에 없고 몽골이나 동남아시아의 위험한 국경을 넘어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고 있다. 방콕에서의 2006 년 8 월 175 명과 10 월 24 일 86 명의 망명희망자들에 대한 집단체포는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국가들의 수용력에 한계를 드러낸 생생한 예이다.

안전한 곳에 탈출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남한에 정착한다. 대부분의 경우 언어, 문화, 가족구성원들과 재결합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타국의 부담스러운 망명자 인정절차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망명자 인정받는 절차가 부담스러운지 아닌지가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독일을 제외하고 북한 인권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정부들, 즉 미국, EU 국가들, 일본 등은 고작 소수의 망명자만을 받아들이고 있다.

임시 대피소로서의 인도주의적 원조에 초점을 둔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는 정치적으로 무장한, 그러나 깨지기 쉬운 지하철도(underground railroad)로 변화했다. 다른 사람들이 폭력과 착취에 고통을 받는 순간에도 일부 탈북자들이 이곳을 통해 며칠 안에 안전한 서울행을 할 수 있다. 만약 이 네트워크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착취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서는 관련정부들은 지속가능한 해결책에 전념해야 한다.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정책들은 어떤 정부도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다. 북한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는다면 국경을 넘는 북한주민들은 북한정부의 엄격한 국내여행 통제와 탈주로 확보에 드는 비용 등과 같은 지속적인 많은 요인들에 의해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참상

을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행동으로 지원할 때이다. 왜냐하면 첫째, 인류의 양심이 이것을 요구하며, 둘째, 국제사회가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핵문제에 대한 운영상의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 권고사항

### 북한정부는:

1. 북한주민들이 느끼는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다음을 통해 중국 여행관련정책을 완화하라:
  - (a) 더 많은 북한주민들이 중국에 사는 친인척을 방문하도록 허용하고 더욱 빈번한 방문을 허용하라;
  - (b) 매년 일정기간 점차 많은 북한주민들이 무역 또는 일을 위해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 그리고
  - (c) 국경지역 인근에 사는 양국의 주민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상업을 할 수 있도록 또는 가족관련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 단기방문을 보장하는 제도를 중국정부와 마련하라.
2. 무허가 중국방문에 대한 처벌을 재고하고 최소한 실질적으로 완화하라.
3. 해외에서 기회를 잡겠다는 등의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압박감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개혁과 개방을 확대하라.
4. 망명자 또는 탈북자 문제를 남한과의 관계와 연계하지 말라.

### 중국정부는:

5.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이들이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 남한 또는 다른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개입하라.

6. 중국인들의 배우자가 된 탈북자와 그들 자녀들에게 임시 거주권을 허용하라.
7. UNHCR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중국내 탈북자들의 욕구를 해결할 망명희망자를 위한 국내 법률체계를 발전·정착시켜라. 그리고 중국인들의 배우자가 된 탈북자와 그들 자녀를 가정내 폭력을 포함한 인신매매와 인권유린으로부터 보호하라.
8. 중국인들의 배우자가 된 탈북자들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가하라.
9. 북한주민들이 중국내의 친인척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라.
10. 숨어지내는 탈북자를 신고하면 지급하는 보상금제도를 없애라.
11. UNHCR 대표부와 NGO 활동가들이 중국내 탈북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하라.
12.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쏟고 희생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

**베트남, 버마, 라오스 정부는:**

13. 탈북자에 중국 또는 북한으로의 강제추방을 중단하라.

**UNHCR 대표부는:**

14. 중국정부가 1951년 난민협약의 추방과 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을 준수할

것을 재촉하고 북한국경지대로의 접근권 허가를 요구하고, 몽골, 러시아, 베트남, 버마, 라오스로의 이동과 재정착을 감독하는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라.

15. 정치적 망명자를 위한 국내 법률체계 발전을 위해 중국정부와 협력하라.

**남한정부는:**

16. 제3국에서 탈북자들이 재배치되고 재정착하는 절차를 UNHCR과 NGO들과 조정하여 명확히 하라.
17. 북한망명자를 돕다가 체포된 남한국적자의 석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라.

**미국정부, EU 와 그 회원국 정부, 일본 정부는:**

18. 중국, 라오스, 베트남 정부를 압박하여 탈북정치망명자를 추방하거나 송환하지 않도록 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개입하라.
19. 탈북자가 망명자로 인정받기 위한 검토과정을 합리화하고 촉진하며, 재정착 지원금을 제공하라.
20.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의 방송시간을 몇 시간에서 하루 24시간으로 늘리라.

2006 년 10 월 26 일, 서울/브뤼셀

## 위험한 여정:

### 중국과 제 3 국에 체류 중인 북한사람들의 참상

#### I. 서론

1990 년대의 경제붕괴와 기근, 뒤이은 식량난은 수십만명의 북한주민을 중국 또는 그 밖의 국가에서 난민으로 전락시켰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대처할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데 실패했다. 최근 10 년동안 인도적지원에 수십억달러를 쓰고 인권침해사례들이 점차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부분 주민들의 상황은 비참한 상태로 남아있고, 중국에 도달한 탈북자들의 여건도 단지 조금 나아진 상황이다. 후자의 상황은 실제로 눈에 띄지않기때문에 중국에 숨어 지내는 탈북자의 정확한 수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몇몇 NGO 단체의 추정치와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월경자와 국경지대의 조선족 중국인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면 아마 전체 100,000 명이상이 될 것이다.<sup>1</sup> 오직 9,0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한에 또는 일본, 유럽, 미국(극소수)으로 안전하게 정착했다.

사람들은 집을 버리고 떠나 깨지기 쉬운 지하철도를 따라 불확실한 여정을 시작한다. 그들이 가진 돈, 인맥, 행운에 따라 5 일에서 5 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여정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과 제 3 국의 탈북자들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데 동원되는 수단으로써 숨겨지고, 자주 바

뀌는 네트워크를 조사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 어떤 것은 목숨을 구하고, 어떤 것은 폭력적이며 착취한다 - 주로 탈북자가 누구를 만날지, 어디 서 살지, 이들이 노출된 위험의 정도, 이들이 갖는 선택들을 결정한다. 최근에 몽골,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외국 외교공관들에 탈북자가 점차 진입함에 따라 외교적한계와 수용국가의 수용력의 한계에 다다랐다. 지난 십년동안 이러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발전을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북한 주민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새로운 보호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세부적 영역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주민들의 참상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접국가들, 남한과 미국간의 긴장의 원인으로 등장했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2004 년 남한정부가 수백명의 탈북자를 베트남에서 남한으로 귀국시킴으로써 남북한간의 회담은 일년이상 정체된 상태이다. 중국 인근국가들은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을 중국 또는 북한으로 강제적으로 송환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을 제 3 국으로 이동할 것을 허용한다. 남한이 대부분의 망명자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미국은 거의 몇몇만을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이 문제에 대해 남한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06 년 4 월 백악관에서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서기와의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삼은 바 있다.

<sup>1</sup> 아래 5 장 참조.

본 보고서는 탈북망명자의 네트워크와 관련국가들의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첫번째 시도이다. 대부분의 난민보고서는 중국이외의 이야기는 기껏해야 보족(補足)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는 2006 년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과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자들과 각각 50 여 차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국경을 넘어 이주 하게 된 요인들과 왜 이 네트워크가 비밀조직이 될 수 밖에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자들의 활동과 중국내 탈북자의 활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을 벗어나 잠시 머물거나 재정착할 국가로의 길고(보통 10,000 km 이상) 불확실한 여정을 추적한다. 이는 몽골에서 미얀마까지, 탈북자가 있는 모든 국가들, 체류국가의 정부들, 선교사들, 브로커들, 외교공관들을 포함한 모든 주요 관련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 되었다. 본 보고서는 난민들과 망명희망자 (Asylum Seeker)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토론하면서 결론짓는다. 개인과 깨지기 쉬운 지하철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세부사항들, 특히 탈주도와 특정 정부들과 단체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소수의 북한주민들만이 중국으로의 합법적 여행 증서를 가지고 있고 대다수는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불법체류중인 탈북자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때문에 가장 취약한 이들은 은신할 수밖에 없고 밀매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임시방편적 외교를 조장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탈주법” 과 “국경업무에 관한 양자협약”에 따라 월경자를 경제이주자(economic migrants)로 간주하고 강제송환한다.<sup>2</sup> UNHCR 은 이들을 “관심대상 (persons of concern)”으로 국제인권 및 인도주의 단체 그리고 언론매체는 공통적으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간주한다.

<sup>2</sup> 북한과 중국은 1960 년에 탈주법 상호인도조약과 1986 년에 국경지역업무협정에 서명했다.

1951 년 난민협약의 해석을 두고 법적논란이 있지만 국제위기감시기구가 믿는 것은 중국에 체류하는 모든 북한주민들의 경우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거나 또는 북한당국의 월경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박해에 이르기 때문에 “체재 중 난민이 된 자(refugees sur place)”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sup>3</sup> 하지만 그들은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들의 공식적 지위를 막론하고 중국과 경유국내 탈북자들은 강제적송환과 그에 따른 박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중국은 국내적으로 정치망명자의 요구를 다룰 법률체계가 없지만 중국과 제 3 국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환을 금지하는 추방과 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국제법적 의무를 따를 수 있거나 다해야 한다.<sup>4</sup>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 중 많은 사람들을 난민 또는 망명희망자(asylum seekers)로 부를 수도 있지만 이 보고서는 하나의 집단으로써 월경자 (Border Crossers)로 칭한다. 여전히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을 위해, 중국내 신분의 취약성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몰래 귀향할 의지가 있다. 귀향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어 왔고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어떤 이들은 중국에 갇혀있는 사람들로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갈 의사가 없고 또는 제 3 국에서 망명을 신청할 수 없거나 그럴 의사가 없다. 중국을 떠나 경유국에 여정

<sup>3</sup> “체재 중 난민이 된 자” 개념을 포함한 법적쟁점에 관한 논의는 부록 C “난민법과 UNHCR 사무소” 참조. 1951 년 난민협약과 1967 년 의정서는 <http://www.unhcr.org/protect/3c0762ea4.html> 에서 확인 가능.

<sup>4</sup> 1979 년 이후 재정착했던 30 만명의 베트남 난민들은 중국 국적자와 유사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시민권 또는 영구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농르폴망원칙에 관한 논의와 중국의 관련 국제법적 의무는 위의 부록 C 를 참조.



중인 탈북자를 망명희망자 - UNHCR 은 망명자를 외국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서술한다 - 로 부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제적 보호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망명자는 난민인정을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라도 국제적보호가 필요하거나 UNHCR 의 관심대상인 자를 말한다.<sup>5</sup> 난민(refugee)이란 용어는 공식적인 난민 지위 또는 보호를 부여받은 북한주민 개인을 칭할 때 사용된다. 남한의 시민권을 획득하고 정착한 북한이탈 주민을 본 보고서에서는 망명자(defector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II. 북한(WORKERS' PARADISE)을 떠나며

정치·경제적 권리의 부인은 북한사회구조에 만연해 있다. 세단계로 나뉘어진 카스트제도가 사회를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하부의 동조계급(wavering)과 반동계급(hostile)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음식을 구하기 위해 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을 떠났다 할지라도 잡히면 이들은 강제노동에 처해진다. 목격자의 진술과 인공위성사진을 통해 볼 때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로 드러났다.<sup>6</sup> 북한헌법이 명목상으로만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하는 것과 같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비난은 효과가 없었다.

북한당국의 사회통제와 세뇌교육은 놀랄 정도로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1990 년 이전에는 단지 소수만이 남한으로 망명했고 몇몇만이 중국에 사는 친인척과 국경너머로 은밀히 송금 또는 교역을 했다. 북한내부에서 또는 외부로부터 정보는 거의 돌지 않았다. 1990 년대의 경제붕괴와 뒤이은 기근이 있고 나서야 비로서 북한주민들은 중국으로 이주했다. 경제붕괴와 계속적인 어려움은 북한정권의 정책결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북한주민들은 직접적인 정치적 억압보다는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중국국경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sup>5</sup> "UNHCR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A Protection Induction Programme", 2006, available at [http://www.unhcr.org/cgi-bin/texis/vtx/publ/](http://www.unhcr.org/cgi-bin/texis/vtx/publ/opendoc.htm?tbl=PUBL&id=44b4bbcd2)

<sup>6</sup> David Hawk, "The Hidden Gulag: Exposing North Korea's Prison Camps",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1.

## A. 국경지역

중국과 북한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구분되는 1,416km 이다.<sup>7</sup> 790km 길이의 압록강유역은 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서 배가 없이는 강을 건너기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곳은 폭이 좁고 수심이 얕아서 쉽게 강을 건널 수 있다. 두만강은 압록강의 북쪽으로 546km 정도 흐르는 강으로 어떤 곳은 무릎정도의 수심이기 때문에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다. 러시아와의 접경지역은 불과 17km 로 두만강 하구의 삼각주의 강한 물살이 이는 곳이다. 국경지대의 대부분의 강수량은 여름 몇 개월에 내리고 우기에 홍수가 난다. 겨울에는 강이 3~4 개월동안 얼며 기온은 영하로 거의 떨어진다.

열두곳의 14 개의 공식 국경검문소가 중국과 북한을 연결한다. 북한은 2004 년에 군대를 동원하여 양쪽의 국경경비를 강화했다.<sup>8</sup> 국경지대에 사는 북한주민에 따르면 500 미터에 2 명이 배치되던 것이 4 명으로 늘었다.<sup>9</sup> 기사에 따르면 2003 년 중국은 상당수의 국경수비대를 군인으로 대체했다.<sup>10</sup> 하지만 국제위기감시기구 연구원들이 방문한 결과 국경의 어느 쪽에도 군인의 출

현은 거의 없었다.<sup>11</sup> 가장 많은 조선족 중국인들이 사는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연결된 다리에는 교통이 한산한 편이다.<sup>12</sup> 가끔 쌀과 비료를 실은 트럭들이 국경을 지나는 것을 볼 수 있다.<sup>13</sup>

국경경비가 걸보기에 허술해 보이지만 중국당국은 북한주민의 월경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당국은 월경자들이 홍수처럼 늘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지역에 경제 혼란을 유발하고 잠재되어 있는 한국 민족주의에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sup>14</sup> 단속과 더불어 북한의 곡식과 기간사업에 피해를 입힌 여름 홍수를 겪은 이후 새 철조망이 단동의 압록강 강변에 쳐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sup>15</sup> 중국쪽 국경지대에 세워진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불법으로 월경한 인근국가 국민의 정착에 돈을 제공하거나 숨겨주거나 또는 도움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sup>16</sup>

---

<sup>7</sup> 국경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국제위기감시기구 아시아보고서 N°112, *중국과 북한: 영원한 동지인가?*, 2006 년 2 월 1 일 참조.

<sup>8</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망명자와 NGO 근무자, 서울, 2005 년 1 월.

<sup>9</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동북 중국 온성에서 온 망명자, 2006 년 4 월 27 일.

<sup>10</sup> Joseph Kahn, “China Moves Troops to Area Bordering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16 September 2003; “China Deploys Troops on Border with North Korea”, *Taipei Times*, 15 September 2003.

---

<sup>11</sup> 국제위기감시기구 관찰들, 2005 년 11 월, 2006 년 4 월과 7 월.

<sup>12</sup> Ibid.

<sup>13</sup> 서해용, “중국 동북부지역 탈북여성들의 애환과 고통”, *자유공론*, February 2006 년 2 월.

<sup>14</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이메일 인터뷰, Roberta Cohen, Brookings Institution, 2006 년 10 월 1 일. 민족주의와 지역간의 긴장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국제위기감시기구 아시아 보고서 N°108, *동북아시아의 갈등의 기류*, 2005 년 12 월 15 일 참조.

<sup>15</sup> Lee Myeong-jin, “A Visit to the Border Reveals Intensified Searches for North Koreans”, *Chosun Ilbo*, 30 September 2006; “At Border Town, Some Chinese View North Korea Warily”, Reuters, 11 October 2006.

<sup>16</sup> Ibid Sophie Delaunay, Médecins Sans Frontières, testimony to the Hous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Subcommittee on East Asia and the Pacific, Washington DC, 2 May 2002.

국경지역에 사는 중국 거주자들은 식량난때문에 월경한 이주자들과 친숙하다. 1957 년에 시작한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은 대략 천육백만명 에서 사천만명의 아사자를 낳았다. 음식을 찾아 북한의 국경을 넘었던 불법이주가 보편적이었고 1960 년 범죄인인도조약과 1986 년 국경지역 업무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상황이 반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국정책의 공식적 가이드라인이 되었다.<sup>17</sup> 불법경제이주자로 분류되는 중국으로의 월경자는 양국의 양자 합의에 따라 송환되며 국제적보호나 UNHCR 의 접근은 부인된다.

상당한 횡수의 국경 너머로의 허가된 여정이 계속되지만 관리를 포함한 중국인방문자는 북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북한에서 온 초청장을 소지해야 한다. 최근까지 관광객이나 사업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북한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했던 반면 관리들은 추가적 비자를 면제받았다. 극수소의 예외로 나진-선봉 경제특구로의 단기간의 방문은 공인된 중국신분증 사본만으로도 충분했다. 2005 년 북한은 출입국지침을 강화했다. 8 월의 2 주동안 모든 관광객의 출입을 막고 10 월 라오닝성의 단동의 국경항구를 폐쇄하였으며, 11 월부터는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했다.<sup>18</sup>

<sup>17</sup> "Invisible Exodus: North Korea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uman Rights Watch, Vol.14, No.10, November 2002.

<sup>18</sup> Yang Jun, "North Korea Temporarily Stopped Greeting Foreign Tourists", *Beijing Times*, 24 August 2005 (in Chinese); "North Korea Began to Adopt More Strict Examining System for Commercial Visa", *NetEase*, 18 November 2005 (in Chinese); "What Chinese Citizens Should Know When Going to North

국경지역은 경제발전에 크고 작은 노력의 근거지가 되어왔다. 신의주 정반대편에 위치한 중국도시인 단동에서 200 개의 북한 무역부가 운영되는 것과 같은 비슷한 계획으로서 2002 년에 신의주 서쪽국경을 따라 특별경제지구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다.<sup>19</sup> 절반이상의 조선족이 살고 있는 중국 북동부에 위치한 3 개의 성은 투자 증대와 활성화의 타겟이 되어왔다.<sup>20</sup> 북한 무역회사들은 거기서도 활동적이며 쌀을 수출하고 철광석을 수입한다.<sup>21</sup> 국경지역을 따라 기간산업에의 중국인 투자 역시 증가했다. 즉 연길, 단동, 대련을 포함한 몇 도시들을 연결하는 철도가 2010 년도 에 완공될 것이고, 남부 신의주에 친선교 (Friendship Bridge) 건설계획이 있다.<sup>22</sup> 2006 년 10 월 중국당국은 북한 회룡의 국경도시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두번째 도로(greenway) 개통을 알렸다. 첫번째 도로는 3 월에 개통되었으며 라진-선봉 특별경제지구와 연결하고 있다.<sup>23</sup>

중국-북한교류의 현저한 결과로써 정보교류, 특히 선지불 중국산 이동통신전화화를 통한 정보교류의 증가가 현저해졌다. 중국에서 50~100 달러에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RC website (in Chinese), available at <http://www.fmprc.gov.cn/chn/wjb/zzjg/yzs/gjlb/1221/1221x3/t176300.htm>.

<sup>19</sup> 더 자세한 내용은 국제위기감시기구 보고서, *중국과 북한* 참조, op. cit., p.26.

<sup>20</sup> Ibid., p.11.

<sup>21</sup> Ibid., p.26.

<sup>22</sup> "Construction Group Founded to Develop the Strategic Vision of Eastern Roads", Forum for the Revitalisation of the Northeast, 5 January 2006 (in Chinese), available at [http://chinaneast.xinhuanet.com/200601/05/content\\_5972713.htm](http://chinaneast.xinhuanet.com/200601/05/content_5972713.htm) and "압록강에 새 다리 생긴다", *조선일보*, 2005 년 6 월 16 일.

<sup>23</sup> 하종대, "북-중 통관간소화 '녹색통로' 또 개설", *동아일보*, 2006 년 10 월 3 일.

팔리는 휴대폰은 국경지역에서 사업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가족과 지하철도의 가이드들이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정보를 건네는 수단이 된다.<sup>24</sup> 휴대폰소지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2005 년초 현재 대략 20,000 명의 북한주민이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다. 휴대폰 소유자들은 다른 사람이 적당한 요금을 내고 사용하게 한다.<sup>25</sup> 그러나 국경지역 도시주민으로부터 휴대폰을 빌린 한 망명희망자에 따르면 휴대폰을 소유하는 것 또는 사용하는 것은 노동교화소(labour camps)에서 장기간 복역을 해야 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sup>26</sup>

## B. 이주 압박

경제의 붕괴는 바로 북한사람들이 극도의 빈곤상태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량사정이 위험수위에 다다랐을 때에도 김정일정권이 추구하는 엄격한 사회통제프로그램이 더욱 압도적이었다. 시민을 핵심계급, 동조계급, 반동계급으로 계속 구분하였고, 1996 년말까지 사회배급제도를 통해 핵심계급만이 음식을 배급받을 수 있었다. 절대다수의 인구는 형법상 금지되어있는 채렵활동 또는 개인소유물의 교환과 같은 대응전략에 의존해야 했다.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하기위해 필요한 증서는 일반시민들은 얻기 힘들었고 해외여행은 거의 불가능했다. 여전히 가족구성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른 도시에서 음식을 구해서 개인

의 생존기회를 높이기를 기대하고 있다.<sup>27</sup> 자신들의 거주도시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 발각된 사람들은 1997 년 9 월 27 일 취임식 날짜를 따서 만든 '9-27 수용소'에 구금된다.<sup>28</sup> 이 수용소는 처음부터 붐볐고 결국 폐쇄되었지만 여전히 국내유랑민의 문제는 심각한 부분이다.<sup>29</sup> 가족내에서 양육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집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아동들이 가장 힘없는 희생자들이다.<sup>30</sup>

그러한 압제적인 법적제한과 붕괴되는 사회통제에 맞서, 매수와 비밀대응전략을 수완으로 하는 대안네트워크가 성장초기에 있고 더욱 복잡해졌다. 당국은 눈감아 주는 것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암시장교역과 범영역밖의 국내여행에 관대해졌다. 당국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은 주로 벌금이나 물품압류 또는 옥살, 구타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처벌도 경제활동이나 무허가여행을 막지는 못했다.<sup>31</sup> 절박한 경제적필요성과 함께 결합된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체포와 심한 처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그들의 살길을 찾아나서도록 부추겼다.

<sup>24</sup> 이 보고서에 표시된 달러(\$)라고 명시된 숫자는 미국달러를 말한다.

<sup>25</sup> Rebecca MacKinnon, "Chinese Cell Phone Breaches North Korean Hermit Kingdom", YaleGlobal Online, 17 January 2005.

<sup>26</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태국 북부지역, 2006 년 6 월 8 일.

<sup>27</sup> W. Courtland Robinson, Myung Ken Lee, Kenneth Hill and Gilbert M. Burnham, "Mortality in North Korean Migrant Households: A Retrospective Study", *The Lancet*, Vol.354, 24 July 1999.

<sup>28</sup> Andrew Natsios,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U.S. Institute of Peace Special Reports, 2 August 1999.

<sup>29</sup> "Project on Internal Displacement", The Brookings Institution and Refugees International, available at <http://www.brookings.edu/idp>.

<sup>30</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NGO 근무자, 서울, 2006 년 4 월 12 일.

<sup>31</sup> "Understanding and Responses of the North Koreans on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 of North Korea", Good Friends, June 2000.

## C. 국경 넘어가기

1997 년-1999 년사이 사상 최악의 기근이 찾아왔고 구호활동의 “첫 물결”이 높았던 시기에 국경은 꽤 열려 있었으며, 중국쪽의 동정심은 상당히 높았었다. 중국 관리들은 대체로 관심 없었고, 북한 국경수비대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상습이 되었다. 나가는데 드는 비용은 13 달러였다. 물론 국경의 어떤 지역은 더 비싸기도 했다. 북한주민들은 몰래 국경을 넘기도 했다.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또는 현금을 벌기위해 국경을 몰래 넘었으며 그들 가족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다. 일부 월경자들은 특정 연락책도, 계획도 없었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호의에 의존해야 했다. 1990 년대말에 세명의 여성과 함께 중국으로 입국한 어떤 사람은 그저 아무런 주택에 가서 그 집주인에게 그들의 사정을 설명하였다.<sup>32</sup>

중국의 기독교 교회들은 적극적으로 초기의 월경자들의 생존전략을 지지했다. 연길에 본부를 둔 한 조직은 국경지역에 “가정집 교회”(house churches)를 지어서 음식, 의복, 기본 의료물품을 제공했다. 수백명의 월경자들이 이 네트워크에 속한 15-20 개의 가정집 교회들을 거쳐갔다. 많은 사람들이 한밤 중에 와서 식료품을 챙기고 동이트기 전에 북한으로 돌아갔다. 일부는 4-5 일동안 국경지역에서 머물고, 또 다른 일부는 연 길을 향해 중국으로 더 이동했을 것이다.<sup>33</sup> 한 목사는 1990 년대말에 국경지대에 피난처 몇 곳을 제공하고, 수천달러 정도의 겨울옷을 나눠준 것을 기억한다. 당시는 상황이 느슨한 상태여서

긴급구호 활동가들과 북한주민들이 국경지대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일부 기부된 물품들은 심지어 장터에서 유통되었다.<sup>34</sup>

1998 년 국경지역에서 실시된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국에 체류중인 월경자들은 다양하고, 기동성 있으며, 주로 은신하여 지내는 인구였다고 했다.<sup>35</sup> 대부분은 20-30 대이며, 식량 또는 일자리를 찾아 중국으로 입국했다. 긴급구호 활동가들은 2/3 가 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추산한다.<sup>36</sup> 함경북도 주민들이 설문인원의 80%에 달했다.<sup>37</sup> 함경북도는 국경과 가장 가까운 곳, 즉 조선족이 살고 있는 중국도시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있고 이 지역은 중공업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이다. 국가소유의 회사가 문을 닫자 실업이 증가하고 식량난으로 일일식량배급은 중단됐다. 경작과 채집이 가능한 토지조차 거의 없는 함경북도 주민들에게 대안이 거의 없었다.<sup>38</sup> 최근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평양과 그 너머에 있는 북한주민들까지 중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은 북한의 고난이 지속되고 있고 탈출경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sup>32</sup> Andrei Lankov, “Rejecting North Korean Refugees Part 2: A Long, Winding and Dangerous Road”, *Asia Times Online*, 8 January 2005.

<sup>33</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남한 목이자 보조자, 서울, 2006 년 4 월 12 일.

<sup>34</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미국 목사이자 활동가, 서울, 2006 년 3 월 22 일..

<sup>35</sup> Robinson, Myung Ken Lee, Hill and Burnham, op. cit.

<sup>36</sup> Ibid.

<sup>37</sup> Ibid. Courtland Robinson, Myung Ken Lee, Kenneth Hill, Edbert Hsu, and Gilbert M. Burnham, “Demographic Methods to Assess Food Insecurity: A North Korean Case Study”, *Prehospital and Disaster Medicine*, Vol.16, No.4, October-December 2001.

<sup>38</sup> Hazel Smith, “North Koreans in China: Defining the Problems and Offering Some Solutions”, University of Warwick, 1 December 2002; Robinson, Myung Ken Lee, Hill and Burnham, op. cit.

1999 년이후 점차 많은 여성과 아동, 그리고 북한에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들이 국경을 넘고 있다. 1999 년 국경지역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남녀의 비율이 대등했지만 지금은 여성이 남성의 3 배정도 많다.<sup>39</sup> 기혼자나 이혼자일 것 같은 남성들이 가족을 위한 식료품을 가지고 귀향하는 경향이 있고, 독신여성은 국경지역에서 신부매매 (bride trade)를 할 수 있다.<sup>40</sup> 결혼은 했으나 실직한 여성도 역시 집을 떠나기 쉽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장에서 찾을 일도 없으며, 사회배급제도에 의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은 때때로 국경 상인으로 일하면서 북한의 암시장에서 중국담배와 다른 물품들을 팔아 가족을 부양한다. 여성들은 또한 잡히거나 송환되더라도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 왜냐하면 중국에 단순히 식량을 구하거나 일하러 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sup>41</sup>

머물렀다. 내용을 보면 이러한 수치는 수십만명의 대량 이주를 의미하지는 않고 초기 월경 네트워크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장 심했던 기간에 월경자의 수치는 대략 만명에서 삼십만명이다.<sup>42</sup> 수치가 가장 높을 당시의 최소한 절반 정도는 3 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머물렀고 70%이상은 3 개월에서 6 개월정도

---

<sup>39</sup> W. Courtland Robinson, Myung Ken Lee, Kenneth Hill and Gilbert M. Burnham, "Mortality in North Korean Migrant Households: A Retrospective Study", *The Lancet*, Vol.354, 24 July 1999;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남한에서 망명자들을 돕고 있는 NGO 국장, 서울, 2006 년 5 월 9 일.

<sup>40</sup> Robinson, Myung Ken Lee, Hill and Burnham, op. cit.

<sup>41</sup> Lee Keum-soon,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tudies Series, May 2006 "Report on Daily Life", Good Friends, op. cit.

<sup>42</sup> Official Chinese figure for summer of 1998, cited in James Seymour, "China: Background Paper on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s in China", Writenet, January 2005. "Report on Daily Life", Good Friends, op. cit.

### III. 지하조직화

월경의 역학관계에서의 주요한 변화는 2000 년에 진행되었다. 최악의 기근은 지나갔고, 북한의 곡식생산력은 증대되었다. 북한과 중국관리들은 월경의 움직임을 유용한 안전판이라고 보았을지도 모른다. 일시적이주는 용인했다. 왜냐하면 북한주민들은 단지 식량과 다른 식료품만을 찾기 위한 것이었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안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망명희망자가 유입함에 따라 NGO, 브로커, 국제언론매체들이 또한 현장에 등장했다. 일부 월경자들은 선교사들이나 NGO 활동가의 직접적도움을 받아 국경을 넘었으며 불법적 신분과 체포 그리고/또는 강제송환에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점차 많은 월경자들이 잠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었다. 또 일부는 더 나은 경제적 자유와 신변안전을 찾을 희망 속에서 중국을 제 3 국으로 가는 길목으로 사용하였다. 2000 년부터 북한과 중국은 점차 느슨한 국경정책의 혜택이 더이상 부정적결과보다 크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 A. 단속

선교사들, 긴급구호 활동가들, NGO 들사이에서 합의된 것은 중국정부가 북한 망명희망자와 그들을 돕는 사람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증대할 것이라는 것이다.<sup>43</sup> 중국정부는 월경자들을 돌려보내는 것에 보상을 지급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에 벌금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했다. 긴급구호활동가들이 말하기를 보상은 400 달러이고 벌금은 3,600 달러이다. 최근 보상은 640 달러로 인상되었음이 보고되었다.<sup>44</sup> 미국의 난민. 이

민위원회에 따르면 2000 년에 최소한 6,000 명이 송환되었다. 예전에 비해 급격한 상승을 보인 것이다.<sup>45</sup> 2002 년 12 월부터 100 일간 불시단속과 송환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3,200 명이 송환되었고 국경도시인 도문과 용정에 1,300 명이 구금되었다.<sup>46</sup> 2003 년 10 월에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6 곳의 감금시설을 군부대내에 운영하고 있고 매주 200-300 명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sup>47</sup> 2000 년부터 중국정부는 점차 월경자를 돕는 NGO 와 긴급구호활동가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sup>48</sup>

#### B. 중국 국경지역의 변화

단속이 한창일 때 몇가지 중요한 변화가 월경자들을 수용하는 중국의 주요지역에서 일어났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많은 NGO 들의 지지를 받는 원천지였고 또 집결장소였다. 이곳에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연민이 있다. 이는 인종적 연대감(특히 북부지역의 북한주민들은 적어도 중국에 친척이 한사람씩 있을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대

---

December 2000; Robert Marquand, "A Refugee's Perilous Odyssey from N. Korea",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16 August 2002 "North Korea Today", Good Friends Research Institute for North Korean Society, No.23, June 2006.

<sup>43</sup> "World Refugee Survey Country Reports: China 2001", 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2001.

<sup>44</sup> "Urgent Appeal for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Médecins Sans Frontières, press release, 19 January 2003; "China: Crackdown on North Koreans 3,200 Forcibly Repatriated to the North", *Yonhap News*, 21 January 2003 (in Korean).

<sup>45</sup> Donald Macintyre, "The North's Bitter Harvest", *Time Asia*, 13 June 2005.

<sup>46</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NGO 근무자, 서울, 2006 년 9 월 19 일.

<sup>43</sup> 국제위기감시기구인터뷰, 2006 년 3 월-6 월.

<sup>44</sup> "Persecuting the Starving: The Plight of North Koreans Fleeing to China", Amnesty International, 15

약진운동시기의 기근때 북한주민들이 도움을 주었던 기억때문이다. 하지만 2000 년대 초반부터 월경자들을 위한 연변의 역할이 축소됐다. 중국 당국의 단속이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벌금과 체포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일부 고용주와 숙박업주는 월경자들을 불쌍 내쫓기 시작했다. 경찰력의 증강때문에 망명희망자들은 시골지역에 은거하거나 도심지의 주거지를 끊임없이 바꿔야 했다.<sup>49</sup>

단속전에 집없는 북한아이들, 소위 꽃제비를 거리 구석구석에서 볼 수 있었고 때로는 관광객 센터에서 돈이나 음식을 구걸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꽃제비와 망명희망자들은 더이상 중국에서 보이지 않는다.<sup>50</sup> 또한 경제적지위 상승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은 부유하지 못하다. 성(省)의 경제는 일반적으로 불경기이다. 월경자들은 여전히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친척의 직접적 도움을 받는다. 또는 한국인 사업장에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본다. 하지만 착취적 노동조건, 특히 월경자 여성에 대한 증언이 있어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와주는 손길 또한 적어졌다.<sup>51</sup> 월경자들은 또한 중국 언론매체에서 폭력자와 강도라고 보도되었다.<sup>52</sup> 2006 년 9 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중국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월경자들에 대한 새로운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시

에 동이 틀 시간에 이웃을 살살이 조사하고 각 가정의 거주서류를 확인했다.<sup>53</sup>

조선족중국인에게는 변화하는 경제적기회는 중국에서 한국인 공동체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월경자들에게는 다른 고향된 모습을 보여준다. 상류층생활을 추구하는 조선족은 연변에서 한국 회사가 자리잡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과 같은 도시중심부로 이사한다. 낮은 출산율과 남한으로의 이민등으로 연변 한국인의 인구는 줄고있다.<sup>54</sup> 2000 년에 지린성 조선족은 842,000 명으로 인구의 39%를 차지했다.<sup>55</sup> 2005 년말에 그 비중은 33%로 감소했다.<sup>56</sup> 30%이하로 감소하면 연변은 자치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를 예상한 정부는 입법을 통해 성에 속한 도시들을 해체하고 도문, 연변, 용정지역을 한 지역으로 재구성하려한다. 상대적으로 작은 영토에서 조선족은 다수가 되고 자치정부를 구성할 요건이 될 것이다.<sup>57</sup>

<sup>49</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중국 동북쪽, 2006 년 4 월-5 월.

<sup>50</sup> Chung Byung-Ho, "Living Dangerously in Two Worlds: The Risks and Tactics of North Korean Refugee Children in China", *Korea Journal*, Vol.43, No.3, autumn 2003.

<sup>51</sup> Joel Charny, *Acts of Betrayal*, Refugees International, April 2005.

<sup>52</sup> Liu XiaoYan, "Blood in Corn Field", *China Youth Daily*, 25 December 2001(in Chinese).

<sup>53</sup> Lee Myeong-jin, "A Visit to the Border", op. cit.; Christian Caryl, "Fed up with Kim? Everybody is exasperated with the capricious leader, including his allies in Beijing", *Newsweek International*, 9 October 2006.

<sup>54</sup> Si Joong Kim, "Economic Status and Role of Ethnic Koreans in China", *The Korean Diaspora in the World Econom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pecial Report No.15, January 2003.

<sup>55</sup> "Report on Survey Regarding Decline of Ethnic Korean Population in Yanbian", Department of Development and Social Planning, 17 December 2001 (in Chinese).

<sup>56</sup> "End for China's Autonomous Korean Region?", *Chosun Ilbo*, 10 March 2006.

<sup>57</sup> "Dismantlement of Yanbian Autonomous Region, Korean-Chinese in Danger of Disappearing", *Boxun News*, 13 March 2006 (in Chinese).



자치주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것은 월경자에게 피난처 또는 식료품을 제공하는 곳으로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교회들은 이미 활동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선교사가 추정하기를 연변에는 200-300 개의 조선족 교회가 있지만 여전히 월경자들을 지원하는 교회는 거의 없다.<sup>58</sup> 일부 선교사들은 중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어떤 위험요소와도 타협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일부는 또 난민문제에 무관심한 기부자들에게 책임감이 있다.

### C. 변화하는 내·외부 요인

네트워크의 지하조직화 움직임은 또한 새로운 외부에서 끌어당기는 요인이다. 북한주민 특히 국경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중국에 더 노출되어 왔고 중국과 남한에 사는 친인척과 연락을 주고 받는다. 남한 TV 프로그램과 영화가 밀반입된 비디오, DVD 등을 통해 북한 전역에 퍼져있고, 남한으로 이주하는 꿈을 키워간다.<sup>59</sup> 최근 탈북자들은 절반이상의 인구가 금지된 남한 오락프로그램을 시청했다고 한다.<sup>60</sup> 몇몇은 하루에 불과 몇시간만 방송하는 단파방송인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방송과 라디오 자유아시아 방송(Radio Free Asia)을 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61</sup> 또한 몇몇은 선전용 책자를 보고 감명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책자의 내용때문이 아니고 종이의 좋은 질 때문이라고 한다.<sup>62</sup> 사람들은 비밀스럽게 남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남한의 삶의 질이 훨씬 높다는 것을 대부분은 안다. 한 여성은 남한에서의 일은 힘들고 사람들도 불친절하지만 사정은 중국보다는 낫다는 것을 남한에 있는 친구로부터 소식을 들었다.<sup>63</sup> 남한에 벌써 도착한 탈북자들은 그들 친인척의 탈북을 도울 자금이 있다.

남한의 친인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네트워크에 돈을 대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그래서 비싼 탈북을 보장하는 틈새시장에 자금을 제공한다. 중국이나 남한에 친척이 있는 경우나 전에 월경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생존전략의 마지막 수단으로써 중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찾기 위해서 간다. 중국-북한간 접촉이 증대되고,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되는 가운데 바깥세상에 대한 정보는 계속 들어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잘 살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점차 정교해지고 있는 남한과 서방세계와 연계된 지하철도를 잘 이용한다. 그러한 유료탈북은 뇌물수수액을 높여왔고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월경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주민을 근원적으로 밀어내는 내부적 요인은 여전히 배고픔과 가난이다. 북한의 경제가 약간 향상되고 있지만 그 혜택은 극소수만 누린다. 2002 년 경제개혁은 암시장 네트워크와

<sup>58</sup> “북요원 217 명 중국 급파”, 미러한국신문, 2006 년 5 월 3 일.

<sup>59</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평양에서 온 여성들, 중국 동북부, 2006 년 4 월 29 일.

<sup>60</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6 년 5 월과 8 월.

<sup>61</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평양에서 온 망명자, 서울, 2006 년 8 월.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윤국한, 미국의 소리방송 한국어 서비스, 워싱턴 DC, 2006 년 8 월 24 일.

<sup>62</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6 년 9 월.

<sup>63</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청진에서 온 여성, 2006 년 4 월 23 일.

국경간 매매를 반영했다.<sup>64</sup> 특히 통화제정을 통한 시장원리의 도입은 처음으로 해외 낙관주의의 지지를 받았지만, 기간산업과 자원의 심각한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고 필요한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못했다. 그동안 실업과 밀린 임금과 더불어 물가는 치솟았다. 그래서 일반노동자의 쌀 구매력은 30 배 떨어졌다.<sup>65</sup>

정권은 2005 년 10 월의 곡물무역의 감소를 생산증대와 결부시켰다. 2005 년 곡식생산력은 증가했지만, 추수는 여전히 연간식량필요량에 1-2 백만톤정도 부족했다.<sup>66</sup> 연말 정부배급활동이 있었지만 기껏 해봐야 간헐적이었고 많은 인구가 배급을 받지 못했다.<sup>67</sup> 궁극적으로 외국통화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지만, 훨씬 더 많은 인구가 기본적 생계조차 꾸리기 어려웠다.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조차 검소한 생활을 해야 했고 자본도 돌지 않았다. 최근 탈북자에 따르면 2006 년 봄 평양사람들은 먹을 것이 충분하지 못했다. 정부가 배급소를 설치

하고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배급을 시행했다.<sup>68</sup>

2005 년말 사회배급제도의 부활은 국제인도주의적 긴급구호노력의 축소 및 2006 년 7 월의 홍수와 더불어, 기근과 중국으로의 대량탈북을 예견하게 한다.<sup>69</sup> 상황을 가까이 지켜본 남한고위관계자는 수백명이 홍수로 인해 죽거나 실종되었다는 북한의 추정을 지지한 반면 남한 NGO 인 좋은 친구들(Good Friends)은 10,000 명에서 55,000 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sup>70</sup> 홍수로 또한 농장, 교통, 기간산업, 집과 빌딩에 손해를 입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7 월 북한을 방문하여 50,000-60,000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90,000 톤의 곡물들이 소실했다고 밝혔다.<sup>71</sup>

장기적인 식량난을 감안할 때 북한정권이 초기 원조를 거부한 것은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한의 적십자사는 2006 년 8 월말 홍수피해에 대한 원조로 약속했던 2 억 6 천만달러를 배분하

---

<sup>64</sup> 북한경제개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국제위기감시기구 아시아보고서 N°96, *북한: 철권정치는 보이지 않는 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참조.

<sup>65</sup> Ruediger Frank, "Economic Reforms in North Korea (1998-2004): Systemic Restrictions, Quantitative Analysis, Ideological Background", *Journal of the Asia Pacific Economy*, Vol.10, No.3, August 2005, pp.278-311.

<sup>66</sup> "The harvest of 3.64 million tons of grain, the largest harvest since 1994/5",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Commodity Intelligence Report, 18 November 2005, available at [http://www.fas.usda.gov/pecad/highlights/2005/11/korea\\_21nov05/](http://www.fas.usda.gov/pecad/highlights/2005/11/korea_21nov05/).

<sup>67</sup> *오늘의 북한소식*, 좋은벗들, 제 12 호, 2006 년 2 월 20 일.

---

<sup>68</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평양에서 온 난민, 중국 북동부, 2006 년 5 월 11 일.

<sup>69</sup> Joel Charny, "North Korea: Nuclear Brinkmanship Likely to Result in Greater Displacement", *Refugees International*, 10 October 2006.

<sup>70</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6 년 9 월 21 일. Choson Sinbo, Published By A Pro-North Korean Group Based In Japan, Reported 549 Killed And 295 Missing. Figures From The UN Were 154 Killed, With 127 More Missing. Kwang-Tae Kim, "54,700 Dead, Missing In N. Korea", *Associated Press*, 16 August 2006; "Aid Group Says Thousands Killed By Flooding In North Korea", *Associated Press*, 2 August 2006.

<sup>71</sup> "World Food Programme to Distribute aid to North Korea Flood Victims",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18 August 2006; "UN Offers Food Aid to Flood-Hit North Korea", *Radio Free Asia*, 26 July 2006.

기 시작했다.<sup>72</sup> 2005 년 북한이 모니터링을 제한 하자 북한프로그램 2/3 정도를 축소했던 세계식량계획은 150 미터톤의 추가식량을 확보했다. 하지만 일반주민이 수령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만 지원 할 것이다.<sup>73</sup>

2006 년 10 월 9 일 북한의 핵 실험은 국제인도주의지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한은 즉각적으로 수해원조를 중단했다.<sup>7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식량계획이나 적십자사와 같은 원조기구들은 기부를 호소하고 이미 모아놓은 재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세계식량계획은 190 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현 북한프로그램에 필요한 1 억 2 백만달러중 오직 10%만 받고 있다.<sup>75</sup> 세계식량계획 북한담당 장-피에르 드 마르게리 (Jean-Pierre de Margerie)씨가 말하기를 2006 년에 이미 국제 원조가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sup>76</sup> 중국으로부터 원조가 60% 감소한 것을 포함해서 말이다. EU 는 2006 년에 약속한대로 원조로 1260 만달러를 계속해서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2005 년 지원규모의 반에 불과하다.<sup>77</sup> 기근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는 위협적인 식량난 때문에 타도시나 중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굶주린 북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될 것

이다. 국제사회는, 특히 남한, 미국, EU 는 신속히 중국과 대화를 갖고 국경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북한을 떠나려는 정치적 동기는 여전히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점차 증가추세이다. 중국에서 살았던 사람이나 외국과 접촉이 있는 사람은 질 높은 삶이 나라밖에서 실현가능하다고 깨닫고, 북한 내의 경제사정을 보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해진 처벌과 제약에 분개하며, 북한 관료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북한을 떠나는 것은 범죄나 반역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용기있는 행위로 보여지고 있다.<sup>78</sup> 중국에서 탈북자들은 북한정권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과 적대감을 토로한다.<sup>79</sup> 북한이 어려움을 겪는 어려움은 결코 미국이나 홍수때문만이 아니라는 인식이 지난 몇 년동안 점차 확산되고 있다.

<sup>72</sup> "South Korea's Red Cross Sends First Flood Aid to North Korea", *Yonhap*, 31 August 2006.

<sup>73</sup> Jon Herskovitz, "UN Ready to Help N. Korean Flood Victims", Reuters, 21 July 2006.

<sup>74</sup> "Seoul Suspends Scheduled Shipment of Flood Aid to North Korea: Official", *Yonhap*, 9 October 2006.

<sup>75</sup> "UN Agency Mulls Halting Food Aid to North Korea Due to Financial Constraints", *Yonhap*, 10 October 2006.

<sup>76</sup> Lindsay Beck and Ben Blanchard, "N. Korea Provocations Leave Aid Situations Precarious", Reuters, 9 October 2006.

<sup>77</sup> "EU Says Will Not Suspend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Agence France-Presse, 9 October 2006.

<sup>78</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남포서 온 난민, 태국 북부, 2006 년 6 월 7 일.

<sup>79</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2006 년 4-5 월.

#### IV. 새로운 패턴과 새로운 네트워크

강요된 지하조직화와 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하면서 망명희망자들을 위한 네트워크는 관련된 개인의 수가 줄어들어 불구하고 점차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이러한 참여자의 감소는 북한내부의 주시할만한 환경변화의 결과라기보다는 네트워크의 지하조직화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자신의 힘으로 중국으로 넘어가지만, 점차 북한 주민들은 떠나기 전에 돈과 연락처를 확보하려고 한다. 재정적제한 및 두려움이 월경자의 수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2003 년 UNHCR 은 약 10 만명의 월경자들이 중국에 머물고 있다고 추정했다.<sup>80</sup> 개별 NGO 들은 해마다 관련조사를 하고 있다.<sup>81</sup> 보다 세밀한 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약 3~5 만 명 정도라고 예상되며,<sup>82</sup> 최근 삼년동안 이 수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좋은벗들은 1999 년에 가장 많은 수치로 30 만명을 추산했으나, 현재는 15 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 삼분의 일이 북한 여성과 중국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이다.<sup>83</sup> 미 국 난민·이민위원회도 역시 난민의 수를 2003-2004 년 10 만명에서 2005 년 5 만명으로 낮춰 추산했다.<sup>84</sup> 미국 국무성은 10 만~30 만명정도의

망명희망자들이 중국 북동부에 숨어지내고 있다고 추정했다.<sup>85</sup> 올해 봄, 고등판무관인 안토니오 거트레스(Antonio Guterres)는 중국에 약 30 만 명이 살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수치는 약 5 만명정도”라고 말했다.<sup>86</sup> 또한 2006 년 봄에 방문하여 만난 월경자 중 “단지 한 사람 만이 체제중 난민인 된 자의 범주에 속했다”고 말했다.<sup>87</sup>

단속과 약간 개선된 북한의 상황, 그리고 탈출의 고비용을 고려할 때, 오늘날에는 기근이 최고일 때보다 적은 수가 떠나고 있다. 동시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제 3 국으로 가고 있다. 이 수는 올해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착취, 체포 그리고 /또는 송환에 대한 계속적 위협은 월경자들을 숨게 만들고 신뢰성있는 추정을 어렵게 한다. 그렇지만 망명자 및 한국계 중국인들과의 심화인터뷰를 바탕으로 볼 때 수십만명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

#### A. 단기 월경자들

여전히 상당한 북한주민들이 중국에 단기간 머물며, 친척을 만나고, 돈을 벌거나 혹은 식량과 병원치료를 받거나, 북한에서 팔만한 물건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고 있다. 이들의 주된 목표는 현금 및 식량을 확보하여,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sup>80</sup> “UN Official Decries Starvation in North”, *Chosun Ilbo*, 19 June 2003.

<sup>81</sup> “World Refugee Survey 2004: Country Report China”, United State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sup>82</sup> Suh, Hae-yong, “Sorrows and Pains”, op. cit.

<sup>83</sup> Noh, Ok-jae, “Assessments and Prospects on the Actions to Improve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dition”, Peace Foundation Symposium, 11 July 2006.

<sup>84</sup> “World Refugee Survey 2006: Country Report China”, 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sup>85</sup> “Annual Report”, 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 2005, available at [http://www.cecc.gov/pages/annualRpt/annualRpt05/2005\\_7\\_refugees.php](http://www.cecc.gov/pages/annualRpt/annualRpt05/2005_7_refugees.php).

<sup>86</sup> “50,000 North Koreans in China Need International Protection: Guterres”, *Lusa News*, 23 March 2006 (in Portuguese). For more on the UNHCR position regarding the protection needs of North Koreans in China, see Appendix C below.

<sup>87</sup> “China: Guterres Meets North Korean Refugees on Visit to China”, *Lusa News*, 23 March 2006 (in Portuguese).

가져가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공식허가를 받아 중국에 사는 친척을 방문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부패로 점철되어 있고 협상하는 것이 어렵다.<sup>88</sup> 친척이 보낸 초청장은 국가보안기관에 125 달러를 내야 접수된다.<sup>89</sup> 중국에 한달동안의 여행허가를 받기 위해 수개월동안 기다려야 한다. 친인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기관이 요구하는 수수료와 뇌물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때때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북한에 음식, 약품, 옷 그리고 약간의 현금을 소지하는 것이 허락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공급의 도움을 받는 가족의 수치는 허가된 여행의 수치에 의해 제한되고, 보안담당자들이 얼마나 압수 하는지에 달려있지만, 이런 형태의 지원은 두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째로 가장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둘째로 여행기간 동안은 신변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와 감옥살이를 감수하며 허가 없이 월경을 한다. 북한-중국간 월경을 준비하는 브로커들은 약 1,250 달러를 요구하고, 국경을 넘는 고객들을 동행하거나 언제 어디가 건너기에 안전한지에 대한 정보를 건네기도 한다.<sup>90</sup> 일부 망명자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도 한다.<sup>91</sup> 국경에서 그들은 단순한 행운, 지형에 대한 지식, 국경경비대와 연관있는 친척들이 준 조언과 호의에 따라 때때로 구금을 피할 수 있다. 2005 년 북한 국경경비대는 두만강을

건너는 한사람당 25-38 달러를 받았다.<sup>92</sup> 남한 선교단체는 현재 액수는 약 50 달러정도라고 밝히고 있다.<sup>93</sup> 1990 년대말에는 13 불정도였다.<sup>94</sup> 여성은 돈대신 성상납을 할 수도 있다.<sup>95</sup> 중국에 돈없이 가려는 북한주민들은 돌아오는 길에 내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한다. 중국 국경경비대는 차로 순찰하기 때문에 거의 발각되지 않고 입국뇌물이 거의 없다.

하지만 국경지역의 다른 부분에서 안정된 장소인 중국내부로 이동하기란 어렵고 위험할 수 있다. 한 할머니는 열흘을 걸어서 숨을 수 있는 도시에 도착했다.<sup>96</sup> 국경에서 브로커를 만나 동행하며 여행하는 이들은 국경지역을 순찰하는 경비대에게 취약하다. 몇몇의 경우에는 브로커들이 인신매매상인 경우도 있다.<sup>97</sup>

일시적인 체류이지만 월경자들은 강제송환의 위협에 시달린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중국인 남성 혹은 조선족 남자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보호수단을 찾으려고 한다. 소수만이 스스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생존한다. 장기간에 걸쳐 중국 북동부의 여성 월경자들의 삶을 살펴 본 연구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 월경자들은 인권유린(학대)을 당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조직적 강간 및 매춘에 연루된다고 한다. 남자들은 농장 및 공

<sup>88</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NGO 근무자, 서울, 2006 년 3 월.

<sup>89</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중국 동북부, 2006 년 4-5 월.

<sup>90</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망명자, 2005 년 5 월.

<sup>91</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망명자, 서울, 2006 년 9 월.

<sup>92</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목사이자 보조자, 서울, 2006 년 5 월.

<sup>93</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중국 동북부, 2006 년 4-5 월, and 태국 북부, 2006 년 6 월.

<sup>94</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중국에서 일했던 보조자, 서울, 2006 년 4 월 12 일.

<sup>95</sup> "Report on Daily Life", Good Friends, op. cit.

<sup>96</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문산에서 온 난민, 중국 - 북한 국경, 2006 년 4 월 23 일.

<sup>97</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평양에서 온 여성, 중국 - 북한국경, 2006 년 4 월 29 일.

장에서 일하지만, 체포 및 송환에 보다 취약하다. 연길지역에 사는 한 남자의 경우, 일거리가 있는 날이면 하루 일당이 2.5 달러정도이다.<sup>98</sup>

중국에서 생존하는 법과 제 3 국으로 가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소문 혹은 언론매체를 통해 전해진다. 젊은이들은 중국의 인터넷카페에서 중요한 단어를 입력하여 북한인권을 옹호하거나 망명자를 보호하는 NGO 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때로는 남한행을 주선하는 단체에 연락하기도 한다.<sup>99</sup> 그렇지만 북한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든지 체포와 인신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심지어 송환과 착취에 취약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더구나 NGO 들이 활동영역을 줄였기때문에 월경자들을 위한 도움은 경미하다. 활동적인 두 NGO 가 각각 40 명의 월경자들을 돕고 있다. 한 그룹은 이들을 도시지역에 융화시키려고 임대 아파트에 머물게 하고, 정기적으로 이사시킨다. 다른 NGO 들은 시골지역의 한국인-중국인을 조직하여 둘 또는 셋의 월경자들을 한 그룹으로 하숙시킨다. 병원치료는 지불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하지만, 많은 북한 사람들 혹은 NGO 들은 돈이 없다.<sup>100</sup>

중국을 다니기 위해서 위조서류는 중요하다. 가장 조잡한 위조신분카드는 약 10-25 달러이지 만 쉽게 발각된다. 중국 가족등록제도상 실제로 등록되어, 주민번호가 있는 신분증의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한다. 질에 따라 다르지만 약 1,260 달러에서 시작한다.

---

<sup>98</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 온성에서 온 난민, 중국-북한국경, 2006 년 4 월 27 일.

<sup>99</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남한 NGO 근무자, 서울, 2006 년 3 월 24 일.

<sup>100</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Médecins Sans Frontières 근무자, 서울, 2006 년 4 월 6 일.

### 리지복 이야기 '고난의 여정'<sup>101</sup>

어느날 오후 한 여성이 긴 막대를 목발로 사용하며 중국 농가의 문 앞에서 경충경충 뛰어나온다. 솟아있는 리놀륨 바닥에 기대어 쉬면서, 흰 양말을 벗어 방문자에게 동상을 보여주며 오른발이 수개월 전과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준다. 발가락 하나는 까만 발톱뿐이며 다른 발가락 들은 심각하게 상처입은 상태였고, 다른 부분은 거칠고 빨갛다. 북한에서 도망친 이후 작년 늦겨울에 그녀가 여기에 왔었을 때에는 더 심각한 상태였다고 하지만 온전하게 낫기에는 어려울 듯하다. 왜냐하면 치료비가 없기 때문이다.

리지복은 자신의 발을 만지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친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그녀는 북한 북동부의 탄광중심지인 고향에서 빈곤에 시달리자 1998 년 만주의 작은 농장에 처음 왔다. 정부는 1994 년부터 배급을 하지 않았고 추수가 끝난 후 들에 떨어진 곡물을 주워 먹으며 살아남았다. 두만강을 건너 도망친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는 어느 날 무작정 국경마을인 무산으로 가는 기차를 잡아탔다. 필요한 여정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쫓겨났지만 집요하게 기차를 탔고 1 월의 어느날 국경에 도착했다. 그 후 얼은 두만강을 걸어서 건넜고 중국으로 왔다.

중국에선 인신매매단이 리씨를 이 마을의 농민에게 팔아 넘겼다. 농가의 삶은 고단했지만, 북한에서의 삶보다는 안락했다. 적어도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 말이다. 이것이 근심없는 삶은 아니다. 리씨는 항상 지나칠 정도로 이웃들에게 친절하다. 그들이 경찰에 신고할까봐 염려되기 때문이다. 어느 여성 월경자와 같이 그녀는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도 없다. 지난해 어느 날 가장 끔찍한 악몽이 현실로 나타났다. 경찰이 와서 그녀를 “등록”한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를 북한 두만강국경의 구금센터로 데려 갔다. 며칠이 지난 후 그녀는 30 여명의 북한 사람들과 함께 수갑을 찬 채로 정권의 무서운 국가보안대로 넘겨졌다. 그들이 왜 강을 넘었느냐? 언제 건넜느냐? 가족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김씨는 단순히 “배고파서 강을 넘었다”고 대답했다.

두주간의 조사가 끝난 후 그녀는 교화소로 이송되고 콩밭에서 일하게 되었다. 식사는 썩은 옥수수 죽이었다. 하루작업을 마친 후 김정일과 김일성 수령의 초상화를 걸어 놓은 방에서 정치학을 하였다. 수감자들은 중국으로 다시는 건너가지 말 것을 지시받았고 일련의 규칙 -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외국노래를 부르지 말 것과 외국춤을 추지 말 것 등이다 - 을 암기해야 했다. 그녀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있었지만, 교화소의 경비원들을 좋아하진 않았다. 어느날 경비원 하나가 뒤통수를 쳐서 눈에 상처가 났다. 그녀가 도움을 청하자 그녀에게 “중국에 가는 것은 심각한 범죄다”라고 말한 후 “돈이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했다.

리씨는 가능한 한 빨리 중국으로 도망쳤다. 이번에는 겨울내내 강이 얼어붙기 전에 건너야 했다. 발은 흠뻑 젖었고, 중국 쪽에는 무릎깊이의 눈이 내려있었다. 행인이 태워주기도 했으나, 주도로의

<sup>101</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중국, 2006 년 4 월 26 일. 사례의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사항을 고쳤음.

검문소에서는 내려야 했고 산을 넘어 우회하여 통과했다. 이러한 동안 신발을 잃어버렸고 그 때 발가락은 얼어버렸다. 피난처에 도착했을 때, 발은 동상에 걸렸다.

그녀는 이야기를 마치고 방 두 칸짜리 농가의 창가에 앉아 교화소에서 숨겼던 아이를 어르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웃지 않았고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듯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녀에 따르면 김씨가 아이를 등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은 그녀의 위조신분증을 사는데 지불해야 할 1,250 달러가 없다. 그녀는 강건너 북한으로 송환되어, 교화소로 가거나 더한 곳으로 갈 수 있다. 작년에 경찰이 왜 송환했는지 그녀는 모르며, 이웃이 신고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뿐이다. 그리고 그녀는 한번 일어난 일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B. 인신매매와 농촌 신부

중국인 남자나 조선족-중국인 남자와 북한여성 사이의 결혼은 생존수단으로써 소개와 같은 드문 경우에서부터 거침없는 인신매매를 통해 이루어졌다. 시골지역의 늙고 장애인 남성사이에서 인신매매한 신부에 대한 요구가 높다. 한가족 한 아이정책(one-child policy)과 남아선호풍토가 젊은 여성들을 모두 공장노동력으로 내몰았던 불균형발전과 결합된 결과이다. 2002 년 보고에 따르면 북한 밀수업자들은 한국계 중국인 인신매매범들과 연계되어 있다. 밀수업자들은 중국제 휴대폰을 통해 국경너머 중국의 인신 매매범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월경시킨 여성 1 명당 63 달러를 받는다. 결혼유무를 불문하고 여성들은 380-1,260 달러에 팔린다.<sup>102</sup> 어떤 보고서들은 이 금액보다 더 많다. 여성당 120-1,200 달러까지 중개료를 매기고, 전형적으로 이십대 후반 신부는 380-630 달러가 든다.<sup>103</sup> 가장 최근에 중국인 남성은 2004 년이후 월경한 북한 여성들을 880-1,890 달러를 주고 소개받는다. 중국인 신부는

3,780-6,300 달러에 팔린다.<sup>104</sup> 어떤 경우에는 여성들 자신이 매매결혼에 팔려간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중국의 사정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지 못한 채로 말이다. 어떤 경우엔 상인을 가장한 결혼브로커에 속아 월경하는 경우도 있다. 국경 간 교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중국땅으로 넘어간 뒤에는 착취에 완전 무방비상태가 된다.<sup>105</sup> 인신매매범들도 브로커를 가장하여 수수료를 받아 여성을 중국으로 데려온 다음 신부로 팔아 넘긴다.

월경의 초창기부터 시작된 소위 신부매매로 인해 현재 거의 10 년동안에 중국인 남성에게 결혼한 북한여성은 상당하다. 이들은 장기간 정착해온 여건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중국영주권을 획득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국가가 그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 자식들 역시 아버지가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대장에 등재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국적 자식들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며, 중학교이상의 교육은 받을 수 없다. 가끔 지방 공무원들이 125 - 378 달러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식들을 가족부에 등록하기도 한다. 북한출신 어머니 역시 등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자식들을 등록하는데 드는 돈을 감당할 수 없다. 게다가 어머 니와

<sup>102</sup> “탈북자 끝없는 탈출”, *조선일보*, 2002 년 7 월 22 일.

<sup>103</sup> Lankov, op. cit.; Lankov, “North Korean Refugees in Northeast China”, *Asian Survey*, vol. 4, issue 6, pp. 856-873, Nov/Dec. 2004.

<sup>104</sup> *오늘의 북한소식*, 제 12 호, 북한사회연구소, 좋은벗들, 2006 년 2 월 20 일.

<sup>105</sup> Suh, Hae-yong, “Sorrows and Pains”, op. cit.



자식이 함께 등록대장에 등재된다고 해도 어머니의 출신배경을 아는 이웃들과 지방공무원 은 신변안전에 위협요소이다.

시골이라는 지리적위치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시 단속에 안전한 편이지만, 당국은 범죄나 불법 이주자신고를 받고 단속하기도 한다. 가끔 거주 자들은 불시단속의 예고를 받기도 한다. 이것은 거주자들에게 북한출신 이웃들 위에 균림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주기도 한다.<sup>106</sup> 당국의 편에 서는 것 또는 적어도 뇌물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는 것이 북한출신 여성과 그들 가족들의 안전에 중요한 것이다.

이런 여성들이 결혼한 가족들은 농촌에 집중되었 기 때문에 경제적기회도 제한적이다. 고향과 여 전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그들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 남편과 사돈간의 관계개선 에 원천이 된다. 현금을 전달하는 밀수업자들은 63 달러의 정액수수료를 받거나 송금액의 20-30%를 받기도 한다.<sup>107</sup>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부인들이 중국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남한으로 갈 것이라는 공포가 있다고 한다.<sup>108</sup>

중국에 거주하는 모든 월경자들은 착취당할 위험 에 있다. 그 중 특히 여성은 가장 취약하다. 남편 이 학대할 수도 있고, 많은 이들이 신부가 도망 가거나 당국에 의해 강제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매매한 신부를 사실상 가택연금시킨다. 브로커가 여성을 매매결혼으로 팔고 돈을 받은 뒤, 그녀에게 다시 도망치도록 지시한 다음 그녀 를 다시 잡아 팔 수도

있다. 이러한 수작이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다.<sup>109</sup> 많은 여성들이 매매촌의 먹이감이 되거나 유흥업소에서의 일을 강요 받기도 한다.

고난과 고통을 놓고 볼 때 “안정적” 결혼생활을 하는 여성은 매촌이나 인신매매로 이끌린 사람들 보다 훨씬 낫다. 최근 중국을 떠난 여성 3 명은 심지어 한족 중국인 남편이 남한행을 준비했다. 각자 250 달러 - 보통가격의 1/10 - 를 지불했고 남편의 먼 친척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밀매 네트 워크와 연결되었다. 그들은 중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2008 년 올림픽을 겨냥한 단속을 피해 남편이 이들을 보냈던 것이다. 그 중 한 명이 정말 남편을 다시 보고 싶었다고 말했고, 다른 두 사람도 약간 주저하며 동의했다.<sup>110</sup> 셋 모두 자녀 들이 아직 중국에 있다. 자녀들은 중국말을 할 수 있고 학교에 다닌다. 그 중 한 아이는 125 달러를 들여 아이를 아들로 공식 등재했다. 거의 십년 동안 네트워크와 일해 온 브로커가 말하길 남편 이 부인을 남한으로 보낸 것은 도덕성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국제결혼을 통해 한 국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아이가 있을 경우 가장 효과 적이라고 그는 말한다.<sup>111</sup>

### C. 지하철도 (UNDERGROUND RAILROAD)

중국에 거주중인 일부 북한 월경자들은 상대적 으로 안전하다. 하지만 모두 임의적 체포와 송환 가능성에 취약하다. 그들이 법적보호수단을 향유 할 수 있다면 머물기를 선호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강경책을 감안할 때 대부분 어디에선가 난민지위를 추구하

<sup>106</sup> Ibid.

<sup>107</sup> Ibid;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청진에서 온 난민, 태국 북부, 2006 년 6 월 8 일, 남한보조자, 방콕, 2006 년 6 월 10 일.

<sup>108</sup> Suh, Hae-yong, “Sorrows and Pains”, op. cit.

<sup>109</sup> “Invisible Exodus”, Human Rights Watch, op. cit.

<sup>110</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방콕, 2006 년 6 월 6 일.

<sup>111</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방콕, 2006 년 6 월 10 일.

는 것 외에 선택은 없다. 대부분은 재빨리 남한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점차 많은 이들이 미국과 타 서구국가에 정착할 가능성 또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구체적 정보와 믿을만한 연락책이 없다. 절대다수는 브로커에게 지불할 돈이 없다.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치 않거나 돌아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중국에 갇혀 있다. 가장 큰 희망은 NGO 나 남한에 사는 친척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일부 NGO 들은 일단 남한에 가서 비용을 되갚으라고 한다. 하지만 저임금과 불안정한 근로조건때문에 북한사람 이 스스로 브로커를 고용할만큼 충분한 돈을 모으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월경자들이 처음 남한행을 추진할 때 네트워크 운영자들은 위조여권과 비행기표를 제공한다. 한 사람당 10,000 달러로 이런 계획은 매우 비싸다. 높은 장벽들때문에 월경자와 활동가들은 안전확보를 위해 외국공관 진입과 제 3 국에 망명 신청 또는 이동 등의 다른 방법을 추진한다.

1990 년말에 중국당국이 망명자를 단속하고 조력자를 체포하기 시작하자 NGO 들은 밀수 네트워크에서 손을 떼었다. 자금을 제공하던 교회 집단들이 남한정부의 감사를 경계하면서 재정적 제약이 발생한 것도 한 이유이다.<sup>112</sup> 일부 NGO 는 중국내 운영영역을 축소하고 남한 또는 제 3 국에의 이송도 피하고 있다. 또 다른 일부는 원조, 경제발전과 정보공유 등의 수단으로 북한내의 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2002 년쯤 서울에 있던 망명자가 그 공백을 메꾸기 시작했다. 직업기술이 없거나 남한에서 근근히 일자리를 찾아 일하는 망명자들에게 중개업은 위험하지만 소득이 높다. 많은 이들이 중국과

북한내에 연락책에 접근이 가능하다. 게다가 그들 스스로가 지하철도를 탔거나 북한 또는 중국을 떠나려는 북한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탈북자 브로커들은 가족이나 친구를 돕기위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소수의 작전만을 수행한다. 극소수만이 전업전문가이다.<sup>113</sup> 남한 정부가 2004 년말 현금지원을 2/3 가량 삭감하면서 망명자 브로커들은 역시 네트워크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다.

다양한 배경과 의제가 있는 소수의 NGO 만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지하철도에 태운다. 이전에 긴급구호활동가가 운영하던 한 조직은 인권유린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망명희망자를 돕는데 전문적이다. 다른 단체는 북한외부로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둘이하나와 Helping Hand Korea 는 기독교단체로써 중국의 북한 월경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제 3 국의 이동을 돕는 일을 했다.<sup>114</sup> 일본에 본부를 둔 한 NGO 는 한국계-일본인이 일본으로 귀향하는 것을 돕는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서울에 본부를 둔 조직으로 어린 망명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고, 매년 소수를 남한으로 귀국시킨다.<sup>115</sup> 북한이나 중국에서 사람을 이동시킬 때 브로커를 고용하는 것이 NGO 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sup>116</sup> 대부분 이러한

<sup>112</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NGO 근무자, 서울, 2005 년 5 월.

<sup>113</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망명자와 NGO 근무자, 서울, 2005 년 1 월.

<sup>114</sup> Helping Hands Korea website: <http://www.familycare.org/network/p01.htm>; Durihana web-site: [http://www.durihana.com/\(for Korean\)](http://www.durihana.com/(for Korean)) or [http://www.durihana.net/\(for English\)](http://www.durihana.net/(for English)).

<sup>115</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벤자민 윤, 서울, 2006 년 3 월 14 일.

<sup>116</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남한 목사이자 활동가, 2006 년 4 월 12 일, 브로커, 2006 년 5 월 12 일; Bill Powell, "Long Walk to Freedom", *Time* (Asia), 23 April 2006.

NGO 에는 소수의 상주직원이 있고, 소액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자주 북한 망명자를 고용하기도 한다.

조직마다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과 태도가 다양하다. 일부는 공공의 시선을 기피하고 가능한 작전이 조용히 진행될 때 탈북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언론의 관심을 환영하고 인식, 지지, 정당성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한다. 특히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용한다.<sup>117</sup> 언론방송과 국제사회의 관심은 중국과 남한정부의 조용한 외교노력의 추진력이 되기도 했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이 채널이 가동될 때에는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경로를 제공한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참상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증대하는 것에도 가치가 있지만, 그러한 캠페인에는 항상 반발이 있기 마련이다. 안정과 질서에 관심있는 중국정부는 숨어있던 북한 월경자들의 주요 사건이후 단속을 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월경자들의 본보기가 되지 않도록 경고신호를 보낸다.<sup>118</sup>

이러한 경향때문에 조용한 외교가 공식화될 때 국가들은 네트워크에서의 역할을 급격하게 축소하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북한, 중국, 남한과의 관계를 보전하기 위함이며, 불법이주자 또는 망명희망자에게 타겟국가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2004 년 베트남 항공기이동

이후 일어났다. 하지만 조용한 외교는 종대한 성공사례들이 있어 왔다.

### 1. 지름길: 담을 넘거나 정문을 통과하여

상당한 수의 북한사람들은 외교공관의 담장을 넘거나 경계가 삼엄해짐에 따라 위조문서를 사용하여 정문을 통해 걸어 들어오으로써 중국에서 곧바로 자유에 도달한다. 2001 년 6 월 “길수네 가족”이라고 알려진 7 명의 한가족이 UNHCR 북경사무소에 진입하여 난민신분인정을 요구했고 중국내 북한 월경자들을 국제사회가 도울 것을 탄원했다.<sup>119</sup> 인도주의적이유로 제 3 국을 경유하여 남한으로 보내졌다. 이듬해 외국공관에 일련의 유입이 있었다. 3 월을 시작으로 25 명의 망명희망자들이 북경주재 스페인대사관에 진입했다. 그 후에 망명희망자들은 남한, 일본, 독일, 캐나다공관과 학교로 진입했다.<sup>120</sup>

또한 그러한 유입은 동남아시아에서도 일어났다. 목표는 2004 년 12 월 하노이주재 프랑스대사관과 스웨덴대사관, 2005 년 1 월 비엔티안주재 미국대사관, 같은 해 5 월 하노이주재 태국대사관

<sup>117</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NGO 근무자, 서울, 2005 년 5 월.

<sup>118</sup> Lee Keum-soon,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tudies Series May 2006;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전 네트워크 운영자, 서울, 2006 년 5 월 31 일.

<sup>119</sup> “Regarding the Action Taken by the Jang Gil-su Family in Beijing”, Statement by Japan-based NGO Rescue North Korean Refugees, available at <http://www.bekkoame.ne.jp/ro/renk/en/701repo2.htm>.

<sup>120</sup> James Kynge and Andrew Ward, “N. Korean Asylum Seekers Invade Embassy”, *Financial Times*, 15 March 2002 “29 North Korean Defectors Burst into Japanese School in Beijing”, Radio Free Asia, 1 September 2004; “Four N. Koreans Arrive in Seoul via Singapore”, *Chosun Ilbo*, 16 July 2004; “44 North Koreans Storm Canadian Embassy in Beijing”, Radio Free Asia, 29 September 2004.

이었다.<sup>121</sup> 2006 년 5 월 그들은 새로운 방식을 택했다. 남한행이 결정중에 있던 4 명의 망명희망자가 미국이 6 명의 탈북자를 다시 정주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선양주재 남한영사관에서 인접한 미국 대사관으로 담을 넘어 진입했다.<sup>122</sup> 그 중 세 명은 미국행이 허가되었고, 한 명은 북한 국가보안대에 끈이 있었으나 미국정보국에 유익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거절당했다.<sup>123</sup>

저널리스트 재스퍼 벡커(Jasper Becker)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이들이 5-6 개월동안 망명희망자들이 떠나는 것을 허가하지않고 난민지위를 부여한 북경주재 대사관들을 처벌했다고 한다.<sup>124</sup> 기근 초반부에 중국정부는 이 이슈에 관한 확고한 정책이 없었고, 북한과의 관계도 경색되었다. 오로지 1999 년과 2000 년에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상대로 경찰업무를 대규모로 단행했다. 그것은 지방경찰의 성과가 되기 전에 이루어진 하향식 정책이었다. 그것은 바로 NGO 들이 국제적관심을 끌고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북한 망명희망자들을 부추겨 대사관에 진입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활동중인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국경지역에서 활동하기에 어렵게 만들었다고 벡커는 말한다. 그러나 최소한 일부 NGO 들은 항상 중국의 압력이 있었

고 대사관진입을 비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진술한다.

외교공관으로의 유입을 많은 이들은 착취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비난해왔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지불된 수수료와 기회주의적 방송국이 지불한 금전적혜택(주로 일본의 방송국)을 비난했다. 그리고 출국 인터뷰에서 숨어 지냈던 곳이 자주 공개되기 때문에 희생자는 중국에 남아있는 탈북자들이라고 말한다.<sup>125</sup> 특별단속이 외교공관으로의 유입을 타하기엔 어렵지만 북한은 분명히 알아차렸다. 2006 년 3 월 북한은 기획탈북에 연류된 일본 NGO 활동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sup>126</sup>

훨씬 많은 대사관 진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보도되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고, 관련정부는 조용히 상호간에 인정할만한 해결책을 모색한다.<sup>127</sup> 외국공관은 보통 중국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장래진입을 예방하고 대사관의 안전을 증진하려 한다. 그래서 네트워크 운영자들은 위조문서를 사용해 탈북자를 정문으로 들여보낸다.<sup>128</sup> 실제로 그러한 모든 경우에 중국당국은 결국 탈북자가 중국을 떠나 주로 남한으로 가는 것을 허용한다.

---

<sup>121</sup> "North Koreans Enter Swedish Embassy in Hanoi", Agence France-Presse, 22 December 2004 "North Korean National Enters U.S. Embassy in Vientiane", Agence France-Presse, 19 January 2005 "Koreans Get Asylum", *Bangkok Post*, 7 July 2005.

<sup>122</sup> "탈북자 4 명, 직원 묶고 中 한국영사관 이탈", *조선일보*, 2006 년 5 월 20 일.

<sup>123</sup> "5 월 駐中 미영사관 진입 탈북자 3 명 최근 미국 행", *조선일보*, 2006 년 7 월 25 일.

<sup>124</sup> 기자회견, 서울 2005 년 6 월.

---

<sup>125</sup> "일본민방 '대사관 치기' 돈줄 ", *시민의 신문*, 2005 년 3 월 14 일.

<sup>126</sup> 이용인, "북, '기획탈북' 연류 일본인 체포영장", *한겨레*, 2006 년 3 월 28 일.

<sup>127</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아시아 각국 수도들, 2006 년 3-9 월.

<sup>128</sup> Choe Sang-Hun, "'Traitors' of North Korea plead desperately for asylum",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6 September 2006.

### 브로커를 만나다: PRETTY SLICK FOR A SAINT<sup>129</sup>

김 BJ(45)는 돈을 벌기위해 브로커가 되었다. (중국과 남한에서 19 개월의 감옥생활을 포함하여) 6 년 이란 세월이 한 사나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이 사람은 여전히 게임에 관여하고 있었지만 그 자신은 더 이상 아니라고 한다. 목돈이 되지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처음 2000 년에 이 일을 시작했다. 중국에 자주 방문하여 일부 북한사람들과 초기 네트워크 운영자들과 모임을 갖은 뒤였다. 그리고 난 뒤의 절차는 위조여권과 서울행 비행기표를 탈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위조문서는 보통 3,000 달러, 고위직 친구들은 5,000 달러가 든다. 탈북자 개개인당 10,000 달러를 받고, 사람당 2,000 달러이상의 순이익을 남긴다. 남한사업가 30 명이 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하다.

모든 경쟁시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행위자가 생존을 위해 적응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다. 세상 물정에 능통하고 수완이 비상한 김씨는 향후 2 년 동안 중국탈출계획의 물결을 탈 것이다. 즉 싸고 빠르지만 위험한 영사관과 국제학교에 진입하는 것, 언론매체의 관심을 끄는 것, 버스, 기차, 승용차, 그리고 걸어서 중국을 통과하고 국경을 건너는 이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양의 현금을 적절한 친구에게 뿌렸을 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공식인 것이다.

중국과 북한정부는 망명희망자와 조력자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시작했다. 2002 년 말 중국경찰은 김씨의 지방안내인 하나를 체포하고 그를 추적하여 체포했다. 15 개월을 감옥에 있었다. 남한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2008 년까지 중국입국이 금지되었다. 석방되어 남한에 온 후 다시 체포되었다. 이번에는 탈북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기위해 위조한 남한여권때문이었다. 4 개월을 감옥에 지내야 했고 남한에 머물 옥구가 없었다. 결국 목숨을 살리기 위해 도운 것때문에 감옥에 가야했고 야유를 받아야 했다. 게다가 지금껏 김씨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북한망명자를 돕는 일에 투자했다. 더 이상 돈의 문제가 아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는 것이고 둘째로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브로커라는 평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일년정도 해외에서 살고 있다.

오늘은 선교단체 또는 NGO 들로부터 4-10 명가량의 망명자사건을 맡는다. 최근 그는 새롭고 싼, 그러면서도 안전한 경로를 사용하고 있다. 한사람당 2,000 달러를 받고 지방안내인에게 일부를 재분배한다. 각각의 성공사건당 200~300 달러를 번다. 그가 생각하기에 성공적이었는데 대단한 것은 아니다. 그는 추가적 뇌물과 같은 예상치 못한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고 담당건수는 불규칙하다.

핸드폰 2 개를 항상 손에 쥐고 있는 김씨. 한 번에 며칠동안 길거리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랜 휴양을 즐길 수도 있다. 남한과 중국에 사는 친척이 북한으로 현금을 보내는 것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관련 업무에 바쁘다. 그리고 몇 개의 프로젝트를 돕고 있다. 오랜 친구 목사 하나가

<sup>129</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2005 년 9 월과 2006 년 6 월 9-10 일. 사례의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사항을 고쳤음.

고아원 2 곳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동네 작은 교회의 집사이기도 하다. 어느날 아침엔 골프를 치고 현지 언어를 배운다. 중국어가 다소 쉽다. 다음은 영어다. 그래야 이 일을 할 수 있다.

마음이 바뀐 뒤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냉소는 여전하다. 그에 따르면 목사들이나 NGO 들은 작전지원에 자금을 대고 있지만 탈북자들이 되갚도록 하고 있다. 북한사람은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거짓말하기 일쑤다. 다른 가이드와 긴급구호 활동가들의 능력과 정치적 영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 여전히 북한사람이 안전한 곳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대해 열정적이고 확신에 차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에 개인적 위험은 감수하고 있다.

## 2. 어려운 통과

순수한 인도주의적 동기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NGO 와 안내인들에 따르면 중국 북동부 국경 지역에서 동남아시아로 월경자를 이동시키는 데에는 적어도 2,000-3,000 달러가 든다고 한다. 일부 남한에 근거지를 둔 망명자그룹은 5,000-6,000 달러를 청구한다. 비싼 가격은 더 안전하다.<sup>130</sup> 남한 NGO 에 따르면 10,000 달러로 망명 대상자가 혼자서 5 일정도 북한에서 남한까지 갈 수 있는 위조문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sup>131</sup> 비싼 수수료와 “견고한 연계망”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느슨한 네트워크의 경우 열에 일곱은 고객이 중국에서 잡혀 북한으로 송환된다고 한다. 2005 년쯤 남한정부의 목돈지불을 축소하는 정착금관련정책변화때문에 브로커들은 가능한한 선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sup>132</sup> 종종 남한에 정착한 가족은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직업을 2-3 개 갖고 일한다.

남한 브로커가 그의 작업을 묘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에 가족구성원이 있는 남한 정착자가 그에게 연락한다. 그는 주소를 받아 북한에 연락책이 있는 중국파트너에게 넘긴다. 북한사람에게 영주지를 바꾸는 것은 드문 일이다. 만약 거주지를 옮겼다면 친인척이 그 사실을 알 것이다. 따라서 그 주소를 사용하여 가족구성원의 소재가 파악된다. 고객이 중국국경근처에 산다면 브로커가 중국산 휴대폰을 사용하여 직접 연락을 유지한다. 구금을 피하기 위해 통화시간이 정해져 있고 통화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을 꺼놓는다. 가족구성원이 국경지역에 멀리 떨어져 살고있는 경우에는 조선족 중국인파트너가 몰래 북한에 들어가 만나고 지침을 전달한다. 고객의 가족구성원이 범죄기록이 있거나 당국이 고객가족이 다른 나라로 망명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라면 북한경찰이 감시할 위험이 항상 있다. 여전히 지속적 감시는 드문 일이기 때문에 파트너들은 보통 접선에 성공한다. 브로커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대부분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은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중국에 살고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브로커의 중국인 파트너는 접선할 때 가족이 중국에 살고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머니나 형 또는 누나가 얼마나 그리워하고 중국에 와서 함께 살고 싶은지 자세하게 말한다. 일부

<sup>130</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NGO 근무자, 서울, 2005 년 1 월.

<sup>131</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NGO 근무자, 서울, 2006 년 3 월 14 일.

<sup>132</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NGO 근무자, 서울, 2005 년 5 월.

북한사람은 처음에는 망설인다. 그러나 대부분은 결국 떠나기로 동의한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나중에 나은 모습으로 북한에 돌아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번 북한을 떠나면 쉽게 마음을 바꾼다. 북한과는 달리 연길과 같은 곳에 자유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전화로 서울에 있는 가족과 통화한 후 마음을 정한다. 남한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이다.<sup>133</sup>

브로커들은 일반적으로 한번에 3 명에서 10 명의 그룹으로 이동한다. 브로커가 그룹을 형성할 정도로 고객이 모이면 은둔지에 있는 사람들을 버스터미널이나 다른 모임장소에 모이게 한다. 그룹은 다양한 시기에 중국의 각지에 살던 서로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한 안내자에서 다른 안내자로 인계된다. 각자 여정의 특정 구간 - 예를 들면, 연변에서 북경구간 또는 북경에서 남부의 운남성구간 등 - 을 책임진다. 안내자들은 조선족이거나 지역민으로써 원칙적으로 총책임 브로커가 고용한 현장요원이다.<sup>134</sup>

중국을 빠져 나오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육로로 몽골이나 러시아로 가는 북쪽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육로 그리고/또는 수로로 동남아시아로 가는 남쪽 경로가 있다.<sup>135</sup> 동남아시아로 가는 육로는 일반적으로 베트남이나 라오스로 가는 길이다. 버마는 일반적이지 않다. 중국 남부 운남성에서 안내자가 망명자를 국경으로 안내한다. 국경경비대에 뇌물을 주고 검문소를 통과하기도 한

다. 어떤 경우에는 모두 검문소를 우회하는 위험을 감수한다. 여전히 망명자들은 차에 내려 국경지대의 산을 넘어 건넌다. 중국과 라오스 국경을 가르는 산을 넘는 데에는 하루가 꼬박 걸리지만 길이 잘 알려져 있고 안전하다. 하지만 육체적 고역이 따른다.<sup>136</sup> 2006 년 2 월 한국 방송국의 한 영화제작자가 중국-북한국경지역에서부터 방콕까지 탈북자와 동행했다.<sup>137</sup>

산을 건너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뇌물을 라오스관리에 제공하는 것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메콩강을 따라 건너는 수로가 개척되었다. 평상시에 중국 남부에서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까지 화물선으로 하루 반나절에서 이를 걸리는데 하루에 40 달러가 든다. 불법 이주자를 태우고 구안 레이를 떠나는데 벌금이 2,520 달러이다. 부유한 선장보다 많지않은 임금을 받는 배 선장들이 불법이주자수송을 맡는다. 실제로 이 벌금이 징수된 경우는 없다. 망명자들은 일반적으로 라오스 강가에 내린다.<sup>138</sup>

#### D. 강제송환

NGO 및 네트워크 운영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브로커 및 탈북자를 검거하기위해 국경단속을 강화했다. 2005 년 밀수된 공개처형비디오에는 인신매매와 불법월경에 대한 처벌이 포함되어 있다.<sup>139</sup> 2006 년 2 월에는 북부 국경도시인 회룡에서 삼백명이 탈북을 계획하거나 남한 및

<sup>133</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방콕, 2005 년 9 월과 2006 년 5 월.

<sup>134</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보조자, 서울, 2006 년 4 월 12 일과 방콕, 2006 년 6 월 4 일.

<sup>135</sup> Aidan Foster-Carter, "N. Korea Refugees Beginning of a Flood?", *Asia Times Pyongyang Watch*, 28 July 2004.

<sup>136</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2006 년 6 월 7-10 일.

<sup>137</sup> "추적 60 분", KBS TV, 2006 년 2 월 15 일.

<sup>138</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치앙라이 출입국관리 사무관, 2006 년 6 월 6 일과 국경거주자, 2006 년 6 월 7 일.

<sup>139</sup>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06, available at <http://web.amnesty.org/report2006/prk-summary-eng>.

중국에 접선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sup>140</sup> 5 월에는 망명희망자로 가장한 217 명의 북한정부요원들이 정보수집작전의 일환으로 파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sup>141</sup>

중국은 국제사회의 감시 및 UN 협약을 이행하라는 미국 국무성의 직접적 청원에도 불구하고 UNHCR 에 통보없이 북한사람들을 계속 체포하여 송환하고 있다.<sup>142</sup> 또한 중국은 선교단체, 긴급구호 활동가, 북한사람들을 이송하거나 숨기는데 연관된 브로커 또한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 및 남한의 감시자들은 현재 선양근처의 단속은 2008 년 올림픽을 준비하는 “정화 (Clean-up)” 운동때문이라고 본다.<sup>143</sup> 중국에 수년동안 머물렀던 사람들은 올림픽 사전준비조치가 최근 남한행의 중요 동인이라고 언급한다.<sup>144</sup>

국제위기감시기구가 실시한 긴급구호 활동가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약 150-300 명의 북한사람들이 매주 강제송환되고 있다.<sup>145</sup> 많은 수의 월경자때문에 북한당국은 형량을 경감하고 형법을 개정했다. 1999 년 개정안은 “불법월경” 과 “국가를 전복할 의도로” 월경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sup>146</sup> 2004 년 개정안은 더 나아가 “월경”과

“빈번한 월경”을 구분하고 있다. 최근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없는 “빈번한 월경”은 교화소에 최고 2 년 복역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1999 년에는 3 년)이다. “항복(surrendering), 변절(changing allegiance), 기밀 정보를 넘기는 것”과 같은 반역죄는 5 년에서 10 년의 종노동형을 받고, 심각한 경우에는 10 년 구금형을 받는다.<sup>147</sup> 이러한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또는 임의적인 자유형(imprisonment)의 이용, 고문, 사형은 계속되고 있다. 처벌은 나이, 성별, 송환된 북한 사람의 경험정도에 따라 다르다.<sup>148</sup>

여성과 아동은 구치소 2 주형과 경미한 형량을 받는다. 하지만 교화소 수개월형과 같은 긴 형량 또한 보편적이다. 송환후 처벌은 임신부와 남한사람 또는 선교사들을 만났다고 자백한 사람에게 가장 가혹하다. 특히, 임신부는 열악한 의료 여건에서 강제불임을 당한다.<sup>149</sup> 수감자가 병들어 눈앞에서 죽어가는 상황을 당국이 알지라도 즉결 처형(Summary Execution)과 장기 종노동형은 여전히 실시되고 있다.<sup>150</sup> 금방 죽을 것 같은 수감자들은 석방되나, 종종 그 다음 주에 죽는다. 많은 수감자들은 교화소에서 지역수용소로 이동하는 틈을 이용하여 탈출하거나, 석방된 후 중국으로 돌아간다. 강제송환된 북한사람들의 약 40%가 중국으로 재입국한다.<sup>151</sup>

<sup>140</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망명자, 2005 년 5 월.

<sup>141</sup> “북 요원 217 명 중국 급파”, 미래한국신문, 2006 년 5 월 3 일.

<sup>142</sup> “Statement on China’s Treatment of Kim Chun-hee”, White House Press Release, 30 March 2006.

<sup>143</sup> *오늘의 북한소식*, 좋은벗들, 북한사회연구소, 제 29 호, 2006 년 7 월.

<sup>144</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2006 년 6 월 6 일.

<sup>145</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Tim Peters, 2006 년 1 월 31 일.

<sup>146</sup> Lee Keum-soon,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tudies Series, May 2006.

<sup>147</sup> Ibid.

<sup>148</sup> Ibid.

<sup>149</sup> Hawk, “Hidden Gulag”, op. cit.

<sup>150</sup> Joel Charny, “Acts of Betrayal”, Refugees International, April 2005.

<sup>151</sup> “100, 000 Refugees: Grim Life in China”, *동아일보*, 2002 년 2 월 27 일.



## V. 중국을 떠나며

중국정부가 국경지역의 월경자들을 검거하여 귀환시키기 시작한 후, 이들은 지하에 숨었고 점차 제 3 국으로 이동을 결심하고 있다. 중국으로 온 대다수는 고난에서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결코 남한에 정착할 의도는 없다. 그러나 강제송환과 뒤이은 가혹한 처벌때문에 점차 많은 이들이 제 3 국의 망명을 결정한다. 이번 장은 탈북자에 대한 중국인근국가의 정책들을 검토하고 특히, 월경과 중국공안과의 잡고 잡히는 게임(cat-and-mouse game)의 길고 위험한 여정을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탈북자가 중국-북한국경에서 멀어질수록 강제송환될 확률은 적어진다.

### A. 북쪽경로

#### 1. 몽골

극심한 일교차와 황량한 초원이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몽골을 통한 망명은 1990년대말부터 하나의 옵션이었고 매년 수백명이 이 여정을 시도하고 있다. 몽골은 남북한과 좋은 외교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중국과 깊은 불신관계에 있고 확고하게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않고 있다.<sup>152</sup>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계속 거절하는 남한정부와는 달리 몽골 정부는 몇 번씩, 최근에는 2006년 8월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그의 방문을 받아들였다. 4년 전 그가 몽골을 방문했을 때 중국은 “기계적 결함”을 이유로 며칠동안 하나뿐인 몽골행 철도 노선을 운영하지 않았다.

<sup>152</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몽골 관료, 울란바토르, 2006년 5월 16-18일.

북한과의 관계에서 몽골은 과거 공산주의국가였던 사실과 최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로의 변환 과정에 있음을 환기하며, “비서방국”, 비위협적인 “체제변화 조연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sup>153</sup> 재정적 이유로 1997년 대사관을 폐쇄했던 북한은 2004년 11월 몽골의 비용지원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두 나라는 상호문화 교류, 기술지원 및 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몽골에는 수백명의 북한사람들이 탄광과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다. 일부 몽골관리들은 양국의 노동자 교환프로그램을 확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sup>154</sup>

일반적으로 몽골은 탈북자의 남한행을 조용히 허가한다. 중국과 북한이 1999년 망명자를 단속하기 시작했을 때 NGO 활동가들은 이들을 중국 밖으로 급히 내보기를 희망하며 몽골을 잠재적 “안전한 피난처”로 고려-국제 언론매체가 생각 해 낸 생각-했었다. 공식적인 난민캠프는 UNHCR의 책임아래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식적 설치계획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 에는 아직 UNHCR 사무소도 없다. 남한정부와 미국 역시 난민캠프를 설치하라는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고 몽골정부는 그러한 계획이 없다고 확증했다.<sup>155</sup> 국무총리 남바린 영호바야르(Nambaryn Enkhbayar)는 “몽골은 어떤 사람도 해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작은 나라이다. 또한 남북 한에 국경을 접하는 이웃나라도 아니다.”<sup>156</sup> 그러나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외무부장관 몽흐 어루길(Munh-Orgil)은 “누구든지 중국으로 강제

<sup>153</sup> Jehangir S. Pocha, “A Softer Approach to North Kore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8 March 2005.

<sup>154</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울란바토르, 몽골, 2006년 5월 16-17일.

<sup>155</sup> Ibid.

<sup>156</sup> “South Korea Plans Transit Camp in Mongolia”, *Taipei Times*, Ulaan Bataar, 29 September 2003.

송환되어서는 안된다.”<sup>157</sup> 라고 말하며 탈북자 수용정책을 재차 확인했고 남한행도 허가했다. 몽골사람들은 북한사람들에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3 년 9 월 26 명의 망명자가 국외추방에 직면해 있다는 언론기사를 본 시민들은 그들의 추방에 반대했다.<sup>158</sup>

현재 몽골은 중국탈출에 있어 위험한 경로 중 하나이다. 네트워크 운영자에 따르면 중국국경경계는 50km 까지 확장됐다. 철도를 타고 탈북자는 몽골로 들어온다.<sup>159</sup> 몽골관리와 한국관리들은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기 전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 남한 기독교단체인 무지개연합은 넓은 부지를 배당받아 430 m<sup>2</sup>의 2 층 건물을 건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탈북자 400-600 명을 포함한 난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복지마을"의 부지인 것이다.<sup>160</sup> 관리들은 탈북망명자들의 증가에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2003 년 100 여명의 탈북자가 몽골을 거쳐 남한으로 입국했으며 그 후로도 상당히 그 수가 늘었다.<sup>161</sup>

---

<sup>157</sup> James Brooke, "Mongolia Under Pressure to Serve as Haven for Refugees", *The New York Times*, 22 November 2004.

<sup>158</sup> "Mongolia: A dispute rises over freedom of 26 North Korean Refugees", Liberty Centre, 16 September 2003.

<sup>159</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6 년 7 월.

<sup>160</sup> "In Mongolia, a Hometown for North Korean Refugees", *Gidok Ilbo*, 20 March 2006.

<sup>161</sup> Brooke, "Mongolia under Pressure", op. cit.;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몽골 관료, 울란바토르, 2006 년 5 월 17 일.

## 2. 러시아<sup>162</sup>

많은 탈북자들이 북쪽경로를 통해 몽골로 가는 반면 그보다 적은 이들이 러시아로 간다. 1998 년 200-300 명이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2004 년까지 2,000 명으로 증가했다.<sup>163</sup> 그때 이후로 러시아를 통해 망명하려는 탈북자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sup>164</sup> 러시아는 1951 년 난민협정의 회원국이고 난민보호가 국내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UNHCR 모스크바사무소는 1993 년에 설립되었지만 망명자들이 결코 가지 않았다. 대신 지방 당국이 탈북자들을 구금한다. 대다수는 벌목공이나 공사장인부로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입국하지만 일부는 중국을 통해 불법적으로 입국한다. 북한에서 직접 월경하는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폭이 넓은 두만강이 국경을 형성하고 있기때 문이다. 한 NGO 는 여전히 "시베리안" 경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로는 중국에서 또는 북한과 러시아의 접경지역을 건너 유크츠크(Yukutsk)의 북쪽과 블라디보스토크 또는 하바로프스크의 동쪽, 또는 모스크바의 서쪽 이다. 이곳 UNHCR 사무소에서 망명을 추구할 수 있다.

2004 년 10 월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직후 북한에서 온 공사장인부가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했다. 그는 나중에 남한에 재정착했다. 망명선언은 남한영사관에서도 있었다. 남한관리의 협력이 있었고 이들은 사건마다 달랐다. 러시아당국은 다소 임시응변으로 대응하고 있다. 때로는 탈북자를 북한

---

<sup>162</sup>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국제위기감시기구 보고서의 다음 주제가 될 것이다.

<sup>163</sup> 1999 and 2005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White Papers.

<sup>164</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러시아 관료, 2006 년 3 월.

이나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남한행을 모른척한다든지 조용히 조장한다.<sup>165</sup> 전 연해주 주지사인 세르게이 다르킨(Sergei Darkin)은 200,000 명의 망명자를 받아들여 그 지역의 “사람이 없어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No people, No development)”를 해결하려 했다.<sup>166</sup>

## B. 남쪽경로

동남아시아로의 남쪽경로는 지난 몇 년동안 가장 자주 사용된 경로이다. 각 정부는 자국이 탈북자들에게 매력있는 곳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도 동시에 남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모두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버마는 곧 예정). 몇몇이 북한과 가까운 정치적 또는 개인적 관계 - 캄보디아 전 국왕은 2006 년 겨울을 평양에서 지냈다 - 를 맺어오고 있지만 남한과 급성장하는 경제적관계는 정치적 충성심을 압도하고 있다. 공개적 연대선언은 북한이 부담이 된다는 개인적 고백에 의해 무효화되고 있다. 중국 접경국가를 통과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하다. 실제 강제송환은 비용과 탁상공론 등의 이유로 드문 일이지만 버마, 라오스, 베트남은 환영하지 않는다. 버마는 탈북자를 끔찍한 환경의 감옥에 최대 일 년동안 감금한다고 알려져 있고, 라오스와 베트남은 국경경비대가 망명자들을 억류하고 몸값을 요구한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골든

트라이앵글의 산속 정글을 통한 길이다. 이곳은 마약밀매와 무법상태로 유명한 곳이다.

### 1. 베트남

위에 언급한 하노이주재 대사관으로의 지속적인 진입이 말해주듯이 언뜻 보면 베트남도 중국처럼 탈북망명자에 관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명목상으로 현존하는 사회주의 다섯나라 중 하나로서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공식 정책은 북한시민들을 송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관계는 즐겁기 보다는 참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교역은 거의 없다. 반면 남한은 상거래와 투자의 주된 파트너로 등장했다. 더구나 베트남 관리들은 북한관리들이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그들 여행경비를 감당한다면 북한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문을 줄였다.<sup>167</sup> 베트남이 경제를 개방하면서 베트남정부로서는 난민문제에 있어 북한보다는 남한정부편을 들어줄 이유가 많아졌다(2006 년 럽스펠드 국방장관 방문환영기념식을 놓고 평가할 때 미국과도 같은 입장일 것이다).

468 명이 남한에 귀국한 2004 년 7 월전까지는 탈북망명자들이 베트남을 동남아시아로의 탈주 경로로 선호하였다. 산이 적은 지형때문이었다. 이 사건 이후 베트남은 국경통제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대량비행기수송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어느 NGO 활동가에 따르면 남한정부는 2003 년에 탈북자 정착정책 변경을 준비했다고 한다. 재정착지원금의 삭감이 예상되는 가운데 브로커들은 그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탈북자를 남한으로 귀국시키려 했다는 것이

<sup>165</sup> Russian diplomat quoted in James Brooke, “Russia Turns Sour on North Korean Refugees”, *The New York Times*, 3 January 2005.

<sup>166</sup> James Brooke, “Slavic Loss Could Turn into Gain for Korean Refugees: Governor of Russia’s Primorye Region Has a Home in Mind for about 150,000 People”, *The New York Times*, 9 December 2003.

<sup>167</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외교관들, 하노이, 2006 년 6 월 5-7 일.

다. 그래서 베트남에 그렇게 많은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다.<sup>168</sup>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 피난처로 가는 탈북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었던 이유는 네트워크운영자들이 베트남피난처가 설치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네번째로 큰 네트워크를 베트남에 살고 있는 남한사람이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작전을 잘 알고 있는 한 남한사업가에 따르면 이익을 챙기려 일하는 브로커들이 베트남에 탈북자 과잉 사실을 무시하여 경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했다.<sup>169</sup> 피난처는 북적대고 탈북자의 안녕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다. 수가 늘어나자 남한 정부는 탈북자들을 더 빨리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너무 많았던 것이다. 피난처 운영자는 피난처 문을 닫았고 감옥에 갔으며 베트남 입국이 5 년 동안 거부되었다. 남한정부는 그들의 보호, 재정착지원, 업적에 대한 공식인정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역"은 탈북자들의 지하철도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여전히 다른 곳으로의 관문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점차 망명자들은 버마와 라오스의 좀 더 힘든 경로를 밟고 있다.

## 2. 버마 (미얀마)

매년 일부 탈북자들이 중국을 떠나 버마로 간다. 버마당국에 붙잡힌 탈북자들은 재판을 받고 최고 1 년까지 감옥형을 복역한다.<sup>170</sup> 하지만 버마는 어떤 사람도 중국으로 송환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1983 년 버마 폭파사건의 결과 경색된 외교관계를 재확립하고 버마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버마는 지난 4 월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는 양국

이 에너지확보를 위해 무기교역을 할 것이라는 의심을 낳았다. 그리고 2006 년 9 월 하바나에서 열린 14 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서 이를 발표했다.<sup>171</sup> 아직 남한은 버마의 주된 투자국이고, 량군에 가장 큰 규모의 한인 공동체가 있다.

버마는 또한 거쳐가는 국가로 사용된다. 검문을 피하기 위해 메콩강 하류로 우회하는데 탈북자들은 중국-버마국경을 건너 산 주(Shan State)로 진입한다. 무장 게릴라 단체인 와정부연합군(the United Wa State Army;UWSA)이 이 지역을 통제하고 마약생산과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sup>172</sup> UWSA 또한 메콩강을 따라 위치한 몇 개의 선창을 통제하고 그 곳을 인근국가로부터 금지된 물품을 밀매하는데 이용한다. 망명자들도 똑같은 경로를 따른다. 중국화물선에 숨어 게릴라단체와 정부군의 예견치 못한 전투가 잠잠해질 때까지 머물기도 한다. 탈북자들은 라오스나 버마 남쪽 국경의 하류에 내린다. 메콩에서 오솔길과 도로를 걸어 태국국경의 하천까지 도달한다. 걸어서 쉽게 건널 수 있고 지역이민센터부근에 탈북자를 데려다 준다.

## 3. 라오스

대부분의 경우 라오스는 가난하기 때문에 효과적 국경치안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쳐가는 국가이다. 비엔티안에서 몇 번의 대사관 진입이 있었다. 태국이 바로 강건너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치와 경제에는 시대착오적이지만 난민문제에는 상당히 협력적이라고 외교관들이 말한

<sup>168</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6 년 2 월.

<sup>169</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6 년 5 월 31 일.

<sup>170</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량군, 2006 년 2 월.

<sup>171</sup> "Myanmar to Re-establish its Ties with North Korea", Agence France-Presse, 12 April 2006; "Two Outposts of Tyranny Restore Ties", *Chosun Ilbo*, 31 August 2006.

<sup>172</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2006 년 6 월 10 일.

다.<sup>173</sup> 라오스로의 공식적 출입을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하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쉽게 국경을 넘나든다.<sup>174</sup> 라오스는 2006 년 3 월 국경지역경비를 강화해 탈북자가 밀입국하는 것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활동중인 네트워크운영자는 북쪽지역에서 그 성과를 목격했다.<sup>175</sup>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단속을 한다고 해서 탈북자가 송환의 위험에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석방을 위해 협상할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살면서 일하는 한 사업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뇌물 수수와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한다.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관리들은 중앙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보다는 지역 마피아가 더 영향력이 있다.<sup>176</sup>

뇌물에 어떤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요구금액은 가지각색이다. 라오스로부터 사람을 사는 것은 보통 300-500 달러가 든다. 몇 주 걸릴 수도 있는 협상이후에도 가격이 여전히 높다면 안내자는 당국이 탈북자를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놔두고 다시 중국국경의 경비에게 돈주고 빼내온다. 탈북자가 이미 송환되는 중이라면 안내자는 북한의 연락책과 연락하여 북한조사부로부터 탈주를 돕는다.<sup>177</sup> 어떤 운영자들은 탈북자들의 석방을 위해 조용히 돈을 지불하는 것 대신에 라오스의 탈북자송환에 의혹을 제기한다. 남한 선교단체는

19 명의 탈북자석방을 위해 두 번에 걸쳐 언론매체를 이용, 국제사회에 탄원했다.<sup>178</sup>

일단 망명자가 중국과 산을 경계로 있는 국경을 건너 지역접선책의 집에서 하루밤을 지낸다. 태국과의 국경역할을 하는 메콩강을 따라 난 정글길은 건기에 좋고 안전하다. 탈북자가 국경경비대가 없는 월경지점에 도달하면 페리나 작은 배-수상택시-를 타고 태국으로 밀입국한다. 일반적으로 3 달러가 든다.<sup>179</sup> 그리고 이것이 안내자가 탈북자를 위해 하는 마지막 거래이기도 하다. 탈북자가 일단 태국에 도착하면 그들은 혼자서 지낸다. 두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태국이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지않을 뿐만 아니라 남한행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명자가 안전하다. 둘째, 태국은 또한 밀매조직에 대한 정책이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브로커가 체포되거나 고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4. 태국

당국은 동남아시아에 도착하는 탈북자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강제송환을 하지는 않는다. 태국과 북한의 물리적 거리, 인도주의 우선 원칙, 외교적관심때문이다. 동시에 태국은 탈북 망명자를 수용하고 이송하는 외교 및 재정적비용을 계속 부담하기 원치 않는다.<sup>180</sup> 게다가 태국 정부는 마약, 상품, 사람의 밀매가 성행하는 국경

<sup>173</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비엔티안, 2006 년 6 월 8-9 일.

<sup>174</sup> "추적 60 분," KBS TV, 2006 년 2 월 15 일.

<sup>175</sup> *The Nation* (Bangkok), 29 March 2005.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2006 년 6 월 10 일.

<sup>176</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버마, 2006 년 6 월 7 일.

<sup>177</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보조자, 2006 년 6 월 10 일.

<sup>178</sup> "Urgent Appe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9 June 2006; "Nine NK Defectors in Laos Face Repatriation: Missionary", *Yonhap News*, 20 July 2006.

<sup>179</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버마에 사는 태국사업가, 버마-태국 국경, 2006 년 6 월 7 일.

<sup>180</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태국 북부 출입국 관리, 2006 년 6 월 7 일.

지역을 국가안보관심사로 간주하고 있다.<sup>181</sup> 요약하면 태국은 탈북자들이 거쳐가는 국가가 되길 원치 않는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해결방안을 찾으려 노력한다. 1-2 년 전만 해도 관리들은 탈북자에 지속적 관심을 보여 왔다. 그들을 전통적인 이주자나 난민과 구별했던 것이다.<sup>182</sup> 2006 년 9 월 19 일 쿠데타정권도 자신들이 돌아야 할 우선순위가 있지 않다면 정책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

관리들은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입국은 관용될 수 없는 범죄라는 메시지를 보내려 노력한다. 지방당국은 본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반면 페리, 버스, 택시 운전자들에게 탈북자를 돕는 것이 발각되면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경고한다.<sup>183</sup> 2006 년 4 월부터 국경경찰이 국가안보회의지침에 따라 탈북자를 밀어내고 있다. 하지만 한 지역에서의 단속은 강 하류 국경까지 확대, 진행되었다.<sup>184</sup> 태국은 라오스, 버마, 중국에게 지지를 요청했지만, 약속된 협력은 매우 더디게 지켜진다고 관리들은 불평을 토로한다.

태국의 곤란한 처지에 만족해하는 이웃국가들 때문에 태국정부는 탈북자유입을 제지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탈북자가 화물선으로 처음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경찰은 그들을 배에 다시 실어 중국으로 보내려 했다. 하지만 선장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며 잘못을 부인하면

서 탈북자를 태우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선장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때문에 태국관리는 그들을 돌려보내고 탈북자를 체포해야 했다.<sup>185</sup>

중국에 국경경계태세 강화를 요청하지만 중국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구에 보안상태를 높여보지만 탈북자들은 브로커와 안내자의 도움으로 검문소를 우회할 수 있다. 네트워크 운영자들은 중국과 라오스에 탄탄한 기반과 태국에 접선책이 있다.<sup>186</sup> 결과적으로 치앙라이의 버스터미널의 한 버스운전기사는 한 달에 2-3 번꼴로 탈북자그룹이 여행증서없이 통과하는 것을 목격한다.<sup>187</sup> 국경에서부터 도로를 따라 설치된 검문소들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치앙라이 남부지방의 한 도시, 파야오에 설치된 검문소본부에서 방콕으로 가던 몇몇의 탈북자를 체포했다. 그러나 국제위기감시기구 연구원이 방문한 결과, 모든 차가 모든 검문소에서 검문당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 수위도 다양했다. 국제위기감시기구는 태국으로 밀입국하는 탈북자의 절반정도가 들키지않고 방콕에 온다고 추정한다.

체포된 탈북자들은 불법입국혐의를 받고 기소된다. 이 때 남한행 절차가 실제로 시작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이 사실을 아는 듯하고 저항하지 않고 자수한다고 한다.<sup>188</sup> 치앙라이 이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데 불법입국에 대해 보통 53 달러의 벌금이나 5 일간의 구류를 언도

<sup>181</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태국 북부 경찰, 2006 년 6 월 8 일과 Porpat Suyanan 소장, 이민국 부국장, 2006 년 7 월 19 일.

<sup>182</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태국 북부 출입국 관리, 2006 년 6 월 6 일과 Porpat Suyanan 소장, 이민국 부국장, 방콕, 2006 년 7 월 19 일.

<sup>183</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태국 북부 출입국 관리, 2006 년 6 월 6 일.

<sup>184</sup> 태국 북부 출입국 관리, Porpat Suyanan 소장, 이민국 부국장, 방콕, 2006 년 7 월 19 일.

<sup>185</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태국 북부 출입국 관리, 2006 년 6 월 6 일.

<sup>186</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태국 북부 출입국 관리, 2006 년 6 월 7-8 일.

<sup>187</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2006 년 6 월 7 일.

<sup>188</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태국 북부 경찰, 2006 년 6 월 8 일.

한다.<sup>189</sup> 앞서 언급된 이유로 탈북자는 다른 불법 입국자들과 달리 추방되지 않고 대기하다가 수도로 이송된다. 절차는 여기까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 1-2 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900km 떨어진 수도로 이송에 드는 비용때문에 이송은 최대 한달정도 지연되기도 한다. 2003 년 이후 공식기록을 보면 357 명의 탈북자가 체포되었다. 올해는 186 명이 체포되었다. 모든 사람이 남한행을 원한다.<sup>190</sup>

태국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태국북부의 한인공동체가 탈북자에 대한 동정이 식었다는 점이다. 남한출신 거주자들은 작은 상점을 운영하거나 선교사들인데 탈북자통역을 위해 경찰서나 이민법원에 불러 다닌다.<sup>191</sup> 5-7 년전에 탈북자들이 태국에 밀입국했을 때 한인공동체-대사관 직원 포함-는 조건없이 도왔다. 이들의 유입이 많아지자 개개인의 사건을 다룰 대사관의 능력과 의지가 감소되었고 공동체의 연정도 뒤따라 감소되었다.<sup>192</sup> 브로커 네트워크 그리고/또는 중국의 NGO 안내자들의 도움을 받은 최근의 월경자들은 과거의 탈북자와 현재 태국의 150,000 명의 버마난민과 비교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접선책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sup>193</sup>

변화는 지역한인경제나 태국관리들에게 효과가 없다. 탈북자그룹은 일반적으로 53 달러정도의 돈을 지니고 있다고 이들은 말한다.<sup>194</sup> 둘 다 점차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알아가고 있으며, 탈북자도 지금은 난민보다는 밀입국자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은 점차 돕기 싫어한다. 왜냐하면 도와주면 실제로 브로커의 일을 끝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운영자에 대한 태국의 단속을 통해 올해 적어도 2 번의 체포가 있었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거물급은 아니었다. 4 월 치앙라이에 살던 한 미국인 학생이 탈북자를 방콕까지 차 태워준 것을 이유로 체포되었다. 6 월에는 라오스 국경에서 여러 외국현금들과 북한신분증을 소지한 남한 여성을 체포했다.<sup>195</sup> 경찰은 지역지리에 익숙하고, 태국어와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사람을 잘 조직되고 패이익이 나는 밀수조직으로 의심한다. 사업가들에게는 태국과 남한당국이 경고하고 나섰다. 만약 탈북자의 태국 입국을 도울 경우, 그들은 추방되고 지역사업과 재산을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한다.<sup>196</sup> 일부는 관리들이 주의깊게 감시하고, 스스로 조심하기도 한다.<sup>197</sup>

---

<sup>189</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태국 북부 출입국 관리, 2006 년 6 월 7 일.

<sup>190</sup> 매사이 출입국관리 외국인 보호소 공식적 기록, 태국, 2006 년 6 월 7 일에 조사.

<sup>191</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태국 북부에 사는 한인 거주자와 출입국 관리, 2006 년 6 월 6 일.

<sup>192</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태국 북부에 사는 한인거주자, 2006 년 6 월 6 일.

<sup>193</sup> "U.S. Refugee Program News", Vol. 4, Issue 1, at <http://www.state.gov/g/prm/rls/65215.htm>.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태국 북부에 사는 한인거주자, 2006 년 6 월 6 일.

---

<sup>194</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Porpat Suyanan 소장, 이민국 부국장, 2006 년 7 월 19 일.

<sup>195</sup> Ibid.

<sup>196</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태국 북부에 사는 한국사업가와 경찰, 2006 년 6 월 6-7 일.

<sup>197</sup> Anucha Charoenpo, "Close Watch on South Korean Businessmen", *Bangkok Post*, 20 July 2006.

### 태국 이민 구금제도 내부<sup>198</sup>

방콕 이민구금센터의 남자들쪽에 대소동이 일어났다. 열댓명의 가족구성원들과 선교사들이 서로 밀고 고함지르며 특정구금자를 찾기 때문이다. 그들은 철재빗장, 철재망, 1 미터 밖에 놓인 군중 통제방어물로 분리되어 있다. 대부분의 방문자들은 음식, 화장품류, 잡지 등을 가지고 온다. 무엇이든지 당국에 검사를 받은 후 빗장 밑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 남자들은 대부분 버마, 라오스, 중국, 남한, 북한 등 아시아에서 왔고 무기력해 보이는 한 남자는 호주에서 왔다. 선교사가 한 탈북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다른 동료들과 나눠가질 성경책과 바나나를 건넨다. 여성쪽에는 한명의 방문자도 없다. 한사람이 다가와 한국말로 다른 탈북자가 있는지 물어본다. 빗장 옆에 앉아 있던 할머니가 대답한다. 그녀는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탈북여성 30 명이상이 위층에 있다고 그녀는 대답한다. 그녀는 더위만 참을 수 있다면 다른 조건들은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안내원들은 대체로 친절하다. 그녀는 태국음식에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 곧 또 다른 젊은 여성이 어둡한 감방구석에서 나타나 이야기를 전한다.

이름은 백해리(32). 그녀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의 한 공장에서 1990 년 말 문 닫을 때까지 일했다. 2005 년 12 월 고향을 떠나기로 운명적 결심을 했다. 가족은 여동생이 중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2002 년 남한에 갔다고 소식이 전해졌다. 결국, 돈, 중국에 있는 브로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전해졌다. 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과 보안대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국경까지 90km 를 이동했다. 한밤에 두만강을 혼자서 건너고 할머니를 만났다. 중국여행을 기다리는 동안 곧 친어머니처럼 친해지게 되었다. 중국을 횡단하는 것은 별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산을 넘어 동남아시아로 가는 것은 극도로 어려웠다. 특히 안내하는 할머니를 도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집을 떠난 지 6 주 만에 태국에 도착했다. 3 주동안 구금되었다. 서울로 가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UN 과 남한당국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백씨는 남한이 자본주의국가라는 것만을 알고 있었다. TV 에서 남한대학생들의 시위장면에 감동받았던 것을 기억할 뿐이다. 돈을 충분히 저축할 수 있다면 부모님과 남아있는 동생을 북한에서 빼내오기를 기대한다.

방콕과 달리 치앙라이 지방의 매사이 출입국관리 외국인보호소는 훨씬 조용하다. 두 개의 작은 감방이 서로 마주하고 있다. 총 50 명을 수용할 수 있다. 탈북자들이 여기서 방콕으로 이송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방관리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때때로 잘못 이해한다. 다른 탈북자들이 감방 벽에 남겨둔 쪽지들에서 의문가는 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름은 이세호(25). 그는 남한에 있는 어머니에게 가기 위해 동생과 함께 함경북도 회령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도주했다. 부인과 자식은 아직 북한에 있다. 동생은 공장에서 일했지만 한 달에 1000

<sup>198</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2006 년 2 월 9 일과 2006 년 6 월 8 일.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사항을 고쳤음.



원도 벌지 못했다. 가족은 부족한 보급에 보충하기 위해 집근처 탄광에서 석탄을 훔쳐다 팔았다. 그것도 충분치 못했다. 그들도 의심받지 않고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 한 번에 한두명씩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떠나길 원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를 설득하기에 실패하자 아들들은 끝내 그들 계획을 말하지 않고 떠났다. 두만강을 건너기 위해 국경 경비대에 돈을 지불했다. 중국에서는 찢어져서 동생이 먼저 출발하고 형은 며칠 뒤 나중에 출발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을 고용해 남한으로 데려오려고 했다. 만일을 대비해 둘 다 여유 돈과 자살할 수 있는 독약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씨의 브로커는 이혼한 늙은 사람과 젊은 아이들 2 명을 포함한 7 명의 한 그룹과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셋 모두 역시 남한에 가족에 있었다.

일단 방콕에서는 더 많은 외교채널에 보다 접근 가능하고 이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정부와 UNHCR 이 개입한다. 태국에 구금중인 외국인의 석방과 강제송환에 관하여 각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협상한다. 하지만 UNHCR 은 태국에 오랫동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sup>199</sup> 방콕에 위치한 출입국관리 외국인보호소의 사무실에서 UNHCR 은 상황을 모니터하고, 망명자를 등록하며, 서류증언을 모은다. 이는 북한이 자국민을 송환하라는 편향된 요구를 해 올 때 숨을 돌릴 수 있는 약간의 외교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태국정부에게 투명성과 책임성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탈북자는 남한의 보호와 시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UNHCR 은 보통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sup>200</sup> 대신 태국당국의 보호아래 구금되거나 피난처에서 머물고 있는 모든 또는 대부분의 탈북자를 “관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UNHCR 은 최소한 남한 NGO 와 협력하여 제 3 국으로의 이송을 돕는다. <sup>201</sup> 최근에 UNHCR 은 치앙라이 소재의 매사이 출입국관리 외국인보호소에 10,000 달러를 기부하여 최대

규모의 탈북자를 방콕으로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 지불에 보탬이 되었다.<sup>202</sup>

UNHCR 이 항상 우호적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태국의 정책은 이미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인도주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북부의 일부 지역관리들은 UNHCR 개입의 의도와 필요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그들은 또한 UNHCR(과 남한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차별대우관행을 비난한다. 예를 들면, 관리들은 네 명으로 이루어진 그룹 중 세명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나머지 한명은 보호소에 남겨두어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다. 고위층 관료들은 기꺼이 협력하지만 태국에 대한 그러한 관심의 방향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좀 더 많은 것이 이민당국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말한다.<sup>203</sup>

방콕에 교회그룹들 역시 남한행을 돕는데 적극적이다. 네트워크 운영자들은 체포를 피하기 위해 탈북자에게 그들에게 오는 길을 가르쳐준다. 남한정착신청이 처리되는데 걸리는 3 개월동안 망명자들은 교회활동가들의 감독아래 생활한다. 아파트에서 그룹별로 살고 보살핌을 받는다. 방

<sup>199</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출입국 관리, 2006 년 6 월 7 일.

<sup>200</sup> 부록 C 참조.

<sup>201</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Porpat Suyanan 소장, 이민국 부국장, 태국 이민국, 2006 년 7 월 19 일.

<sup>202</sup> Ibid.

<sup>203</sup> Ibid;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태국 북부 출입국 관리, 2006 년 6 월 7 일.

콕에서 강장 비싼 의료보호센터에 가기도 한다. 대부분은 매일 교회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받는다. 결국 2006 년 8 월 22 일 방콕의 한 가정집에서 175 명의 탈북자의 체포가 명확해졌을 때 그들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됐었다.<sup>204</sup> 체포된 대부분은 여성이었고, UNHCR 은 오직 16 명에게만 관심대상이라고 인정하는 서류를 발급했다.

지역주민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태국역사상 가장 많은 탈북자를 체포했다. 방콕 북부법원은 136 명에게 불법입국 및 허가없이 체류한 죄를 적용하여 30 일간의 구류형과 1 년의 집행유예형을 언도하고 각각 160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sup>205</sup> 누구도 벌금을 낼 수 없어서 방콕에서 약 50km 떨어진 빠툼타니지방의 일반 외국인보호소에 수감하도록 명령했다. UNHCR 로부터 관심대상이라고 인정받은 사람과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sup>206</sup>

관료들은 언론의 관심에 불편해 했다. 이 문제가 조심스럽게 해결되고 다루어지기를 선호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체포를 둘러싼 배경은 탈북자들이 관심을 원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사실 그들은 오히려 체포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공식처리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이것이 스스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다.<sup>207</sup> 관료들이 국제위기감시기구에게 말한 것에 따르면, 태국의 인도주의정책에 내용이 없다는 언론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번 체포는 최소한 부분적으로 지역경찰의 과도한 반응이었다고 한다. 탈북자 대부분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태국과 협력하고 있는 남한으로 가고자 지원할 것이다.<sup>208</sup> 미 국무부장관 엘렌 사우어브레이 (Ellen Sauerbrey)는 태국을 방문하고 미국정부 역시 미국행을 희망하는 몇몇의 사람들의 재정착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sup>209</sup> 이번 체포를 계기로 “탈북망명자, 특히 태국내의 탈북망명자에 관한 결의안”에 관한 공동제안서가 유럽연합의회에 상정되었다. 또한 탈북자의 재정착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sup>210</sup>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06 년 태국에서 체포된 총 탈북자 수는 400 명이 되었다. 2005 년에는 80 명이었다. 수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 월 18 일에 7 명이 추가로 경찰에 자수했다.<sup>211</sup>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최근 태국 방문중에 갑작스런 사건을 경시했다. 그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태국으로 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다른 곳과 비교하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sup>204</sup> “North Korean Migrants to Be Tried for Illegal Entry”, Thai News Agency, 23 August 2006.

<sup>205</sup> “Court Ordered 136 North Korean Six Months in Prison, Fined THB 6,000 for Illegal Entry”, INN News website, 24 August 2006 (in Thai).

<sup>206</sup> “Court Sentenced 136 North Koreans to Jail”, News Update, privately-owned iTV television channel, 25 August, 2006 (in Thai).

<sup>207</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태국 정부관료, 방콕, 2006 년 9 월 12 일.

<sup>208</sup> Ron Corben, “Thailand Discovers 175 North Korean Refugees Hiding in Bangkok”, VOA News, 23 August 2006.

<sup>209</sup> Simon Montlake, “Swell of North Korean Refugees Could Strain Thailand’s Tolerance”,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13 September 2006.

<sup>210</sup> Available at <http://www.nkfreedomhouse.org>.

<sup>211</sup> “Civic Group: 7 North Koreans Defect”, *Joongang Daily*, 19 September 2006.

다.<sup>212</sup> 그러나 태국은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활동가들과 긴급구호 활동가들을 냉혹하게 체포할 수도 있다. 탈북자의 계속되는 유입과 방콕 외국인수용소의 만원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교회단체들이 추가적인 탈북망명자를 수용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한 태국의 시스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경찰당국은 주택소유자들을 조사하고 탈북자가 방콕에 오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 그들은 불법이주자를 돕거나 숨겨줬다는 죄목으로 감옥살이를 하거나 벌금을 내야한다.<sup>213</sup>

여정의 마지막 구간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 재정착 요구가 남한 대사관에 접수되면 탈북자는 배경조사를 받고 UNHCR, 남한관료들과 면접을 한다. 일반적으로 전체과정은 2-3 개월이 소요되지만 아이들, 약자, 유용한 정보를 가진 자들은 2 주가 지나기 전에 남한으로 이송될 수 있다.

## VI. 새터 찾기 (FINDING A NEW HOME)

### A. 남한

95%의 탈북자들이 남한에 재정착한다. 남한정부는 조용히 그들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헌법이 그들의 시민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려하지는 않는다. 남한에 귀국하는 탈북자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0 년대 초중반에 소수에 불과했던 것이 2003 년 이후로 매년 평균 1,000 명이상에 달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비행기 수송을 했던 2004 년에 1,897 명으로 사상 최대치였다.<sup>214</sup> 2006 년 7 월경 약 8,741 명의 탈북자가 남한에 정착했다.<sup>215</sup>

남한이 모든 탈북자를 받아들이면서도 이 이슈가 북한과 이들을 수용한 나라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고 있다. 또한 남한정부의 주된 관심은 북한의 안정을 유지하고 연착륙을 준비 하여 적은 비용으로 통일하는 데에 있다.<sup>216</sup> 2004 년 비행기 수송 직후,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NGO 들에게 “탈북을 유도하거나 촉진할 것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과 일치하지 않으며 북한과의 관계에 긍정적 효과가

<sup>212</sup> “U.S. urges Asian nations to help North Korean refugees”, *Kyodo News*, 1 September 2006.

<sup>213</sup> “Police Round Up 175 North Koreans from a Bangkok House”, *The Nation*, 23 August 2006.

<sup>214</sup> Gordon Fairclough, “Activist Network Helps Refugees Flee North Korea, Pyongyang Issues Threats after Hundreds Arrive in Seoul Through Vietnam”, *Wall Street Journal*, 30 July 2004.

<sup>215</sup> “Updated Statistics on Inter-Korean Contacts,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Humanitarian Assistance, and North Korean Defectors (as of the end of December 2005)”, Ministry of Unification, 25 January 2006, at <http://www.unikorea.go.kr/index.jsp>. 1,056 more have arrived this year.

<sup>216</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이메일 인터뷰, Roberta Cohen, 브루킹스 연구소, 2006 년 10 월 1 일.

있지않다”고 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비 행기수송에 대한 “오해”와 납치라고 규정지은 것 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sup>217</sup> 같은 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유랑하는 탈북자문제와 기획탈북의 이슈가 잘되지 않을 때 NGO 가 그 책임을 정부에게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한 반장관이 “외교통상부직원이 중국에 유랑하다가 인근나라로 입국한 모든 탈북자 에 대한 극도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sup>218</sup>

2004 년 8 월 12 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정부는 NGO 주도의 남한입국을 제한하기로 합의 했다.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이유는 기획탈북때문이다”고 12 월 당시 이봉조 통일부차관이 말했다. <sup>219</sup> 정부는 그때쯤 2005 년 시행할 탈북자정착지원금에 대한 새로운 그러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브로커에게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기응변적 노력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탈북자들이 중국에 머물도록 하는데 효과적이었다. <sup>220</sup> 또한 새 정책은 제 3 국에서 10 년 이상 살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를 가려내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정부는 탈북자를 가장한 중국국적자가 입국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모든 일을 인도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다룰 것

을 재확인했다. <sup>221</sup>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남 북간 회담은 일년간 동결상태에 있다.

통일부가 운영하는 새로운 정착정책은 삭감된 현금을 소액으로 나눠 장기간 지급하는 것이다. 초기 자본금을 13,000 달러에서 3,000 달러로 현저히 줄이고, 총지원금은 한가구당 36,000 달러에서 20,000 달러로 낮춰졌다. 그러나 탈북자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마치면 추가로 15,000 달러를 받을 수 있다. <sup>222</sup>

대부분 탈북자에게 남한의 삶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부는 심지어 제 3 국에서의 재정착을 추진한다. <sup>223</sup> 도착하면 탈북자들은 조사를 받고, 탈북자를 위해 199 년에 설립된 하나원에서 3 개월 동안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수료한다. 2002 년에 여성들만을 위한 하나원 분원이 설치되었고 2004 년에 보건소가 추가되었다. <sup>224</sup> 탈북자들은 남한문화에 관한 수업을 듣고 기본적 컴퓨터교육과 직업교육을 받는다. 많은 이들이 가족의 탈북을 돕거나 자신의 여정중 브로커에 진 빚을 갚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

정부는 탈북자에게 브로커에게 약속했던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탈북자들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정문에서 기다리는 브로커를 피

<sup>217</sup> “정동영 통일부장관: ‘NGO 의 기획탈북이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 *동아일보*, 2004 년 8 월 16 일.

<sup>218</sup> “외교통상부 반기문장관: ‘NGO 가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곤란하다’”, *연합뉴스*, 2004 년 8 월 16 일.

<sup>219</sup> 주성하, “탈북자입국을 막자는건가?”, *동아일보*, 2004 년 12 월 24 일.

<sup>220</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5 년 4-5 월.

<sup>221</sup> “정부의 탈북자정책의 결론은?”, SBS TV, 2004 년 12 월 24 일.

<sup>222</sup> “탈북자를 위한 현(現) 정착프로그램”, 통일부, 2005 년 4 월 26 일.

<sup>223</sup> “국내정착 탈북자 34 명 제 3 국 이민”, *동아일보*, 2004 년 11 월 13 일.

<sup>224</sup> Citizen’s Alliance activity report, at [http://www.nkhumanrights.or.kr/NKHR\\_new/new\\_pages/sixth/documents/nkhr.doc](http://www.nkhumanrights.or.kr/NKHR_new/new_pages/sixth/documents/nkhr.doc); “25 Per c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Suffer PTSD”, *Ohmynews*, 25 October 2005.

하기 위해 하나원 뒷문으로 나온다.<sup>225</sup> 20%가 브로커에게 지불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입국한지 7-8 개월만에 평균 6,000 달러의 빚을 지불한다.<sup>226</sup> 일부 브로커들은 탈북자가 정부정착금과 보조금을 받기위해 개설한 은행통장을 관리하기도 한다.<sup>227</sup> 이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착의 어려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낮은 편이다.<sup>228</sup> 결국 탈북자는 사회고정관념과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들 중에 실업률은 높다.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sup>22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입국을 원하는 만명의 탈북자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의 중국에 있는 여성망명자들은 남한으로 오고 싶어 한다.<sup>230</sup>

## B. 미국

2006 년 봄, 탈북 망명자들에게 미국에 정착하는 것이 희미한 바람에서 현실적 선택이 됐다. 북한 인권법이 의회의 만장일치 지지로 2004 년 10 월

에 법률로 통과되었다.<sup>231</sup> 법안은 첫째, 탈북자 재정착에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고, 둘째, 북한 전역에 정보를 확산하고, 난민 원조를 확대하며, 인도주의 원조의 투명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미국 정부의 필요성에 주의를 환기하고 2008 년까지 매년 240 만달러 사용권을 부여하였다.<sup>232</sup> 탈북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본 법안 302 섹션은 이들이 남한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유로 미국 난민지위 또는 망명자격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미국에 재정착하는 극소수를 제외한 다른 탈북자에게 기회를 창출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다. 난민 또는 망명지정자는 20 명이 안된다.<sup>233</sup> 2006 년 초, 양당 하원의원 10 명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통과된 240 만달러가 최근 예산청구에서 누락된 것과 중국, 베트남, 태국주재 미대사관 직원이 탈북망명자 돕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sup>234</sup> 라이스 장관은 2 월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우리는 난민활동에 우리가 참가할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난민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고, 그것을 DHS 와 재검토하고 있으며, 그것을 FBI 와 재검

<sup>225</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NGO 근무자, 서울, 2005 년 1 월.

<sup>226</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NGO 근무자, 서울, 2005 년 1 월; 김은남과 고제규, “새터민과 남한주민, 동상이몽”, *시사저널*, 2005 년 7 월 5 일.

<sup>227</sup> “Aiding North Korean Defectors Becomes a Business”, *Joong-ang Ilbo*, 22 November 2004; 김은남과 고제규, “새터민과 남한주민, 동상이몽”, op. cit.

<sup>228</sup> 새터민이슈와 통일의 의미는 국제위기감시기구 보고서의 다음 주제가 될 것이다. 북한에 관한 남한의 인식에 관한 정보는 국제위기감시기구 아시아 보고서 N°89, *한국인의 대북인식: 다른 별로부터 온 형제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 참조.

<sup>229</sup> “North Korean Defectors Take a Crash Course in Coping”, *The New York Times*, 25 June 2006.

<sup>230</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NGO 근무자, 서울, 2005 년 1 월.

<sup>231</sup>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vailable at <http://www.internationalrelations.house.gov/nkhra.htm>.

<sup>232</sup> 이것은 쪼개져서 사설조직에 200 만달러, 북한에 배분할 라디오와 기타 품목에 200 만달러, 난민과 희생자를 위한 인도주의적·법적지원과 북한으로의 인도주의지원에 2000 만 달러 지원될 것이다.

<sup>233</sup> Tim Peters, quoted in Jane Cooper, “NK Human Rights Act Does Little to Help Refugees in China”, *The Korea Herald*, 1 February 2006

<sup>234</sup> Foster Klug, “Lawmakers Frustrated with Implementation of NK Refugee Act”, Associated Press, 24 February 2006.

토하고 있다”고 했다.<sup>235</sup> 그녀의 발언은 미국이 “올해 200 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곧 언론기사화되었는데 놀란 관리가 인원은 20 명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sup>236</sup>

북한인권을 옹호하는 NGO 와 상원의원들은 2006 년 일련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는 2004 년 부터 그들이 매년 조직한 북한자유주간활동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탈북자와 유괴된 사람의 가족을 만났다. 이 시간이 그의 대통령 재임기간 중 가장 감동적인 모임이었다고 묘사했다.<sup>237</sup> 그 다음 주 6 명의 탈북자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고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송되었다. 이것은 2006 년 5 월 선양 진입사건을 포함하여 일련의 미국망명청구를 부추겼다. 남한 외교통상부의 확인에 따르면 13-14 명의 탈북자가 몇몇 국가의 미국대사관에 망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선양주재 영사관에 또 다른 진입이 있었다. 최종 목적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sup>238</sup>

첫 여섯명의 난민의 미국행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응은 조용했다.<sup>239</sup> 그러나 인근국가에서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법적 비자기한을 넘겨 체류했던 북한사람처리에 있어 미국정부는 한국정부를 당황하게 했다. 몇몇이 남한 시민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명신청을 했다. 법안이 발효된 후 곧바로 표면화된 한 사건에서 시애틀 이민법원은 남한에서의 장기간에 걸쳐 거주한 점과 “정치적 탄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점을 이유로 난민지위를 부인했다.<sup>240</sup> 뒤이은 몇 개의 사건에서도 똑같이 거부되었다. 하지만 2006 년 4 월 LA 이민법원은 2004 년 멕시코를 경유하여 가족과 함께 미국에 불법입국한 전 북한군 장교를 정치망명자로 인정했다. 가족은 1998 년에 남한에 재정착했었고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사정에 관한 논쟁이 이 사건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지만 많은 남한사람들은 이 판결에 당황했다.<sup>241</sup> 한 정부관계자가 언론에 “국가세금으로 지원하는 모든 것(100,00 달러 이상)을 받은 후에 어떻게 차별을 주장하는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sup>242</sup> 통일부는 그 결정을 “말도 안 된다”고 비난했다.<sup>243</sup> 8 월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에게 두번째로 망명이 인정되었다. 이는 남한정부의 항의를 유발했다.<sup>244</sup> 가장 최근, 남한으로부터의

<sup>235</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이메일 인터뷰, Joel Chamy, 2006 년 9 월 26 일. “U.S. Envoy on NK Human Rights will be more Active: Rice”, *Yonhap News*, 16 February 2006.

<sup>236</sup> “U.S. Could Take 200 North Korean Refugees in 2006”, Radio Free Asia, 23 February 2006, (in Korean and English);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2006 년 3 월 24 일.

<sup>237</sup> White House Press Release, 28 April 2006.

<sup>238</sup> “탈북자 미국공관 진입”, *한겨레*, 2006 년 6 월 29 일; and Lee, Chi-dong, “Over Ten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east Asia Awaiting Asylum in U.S.”, *Yonhap News*, 29 June 2006; “Two North Korean Defectors Seek Asylum at U.S. Consulate in China”, Associated Press, 19 September 2006.

<sup>239</sup> “한국은 방해도 협조도 없었다”, *조선일보*, 8 May 2006 년 5 월 8 일.

<sup>240</sup> “U.S. Court Denies Refugee Status for NK Defector”, *Yonhap News*, 23 November 2004.

<sup>241</sup> Barbara Demick, “DPRK Defector Seeks Asylum from ROK”, *Los Angeles Times*, 8 May 2006.

<sup>242</sup> “N.K. Defector in U.S. Received Over 126m Won in Aid from Seoul”, *Korea Herald*, 3 May 2006.

<sup>243</sup> “Minister: LA Court’s Ruling Was ‘Nonsense’”, *Joong Ang Daily*, 4 May 2006.

<sup>244</sup> “Another NK Defector Granted Asylum in US”, *KBS Global News*, 17 August 2006.

보호를 요구하는 탈북자 가족에게 노동허가증이 발급되었다.<sup>245</sup> 미국정부는 이러한 이슈들을 북한 인권법에서 분리하여 이민법원의 독자적 판결로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들이 처리중에 있고 미국과 남한의 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다.

올해 조정의 노력이 있었지만, 안보문제와 비슷하게도 미국과 남한의 난민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sup>246</sup> 가능성은 그들이 노력하는 만큼 열려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도움은 없다.<sup>247</sup>

### C. 유럽

수백명의 탈북자들이 유럽에서 안전을 찾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는 인정된 인원수, 도착수단 또는 선택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밝히길 거절한다. 독일은 가장 많은 인원을 받아들였고, 영국은 100 명의 신청자중 대략 20 명을 받아들였다.<sup>248</sup>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등은 각각 소수를 받아들였다.<sup>249</sup>

---

<sup>245</sup> "U.S.: North Korean Defector Ma Young-ae and Family Apply for Asylum", *Chosun Ilbo*, 19 September 2006 (in Korean).

<sup>246</sup> "U.S. State Department Official Talks Defectors with Seoul", *Chosun Ilbo*, 26 May 2006.

<sup>247</sup>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Ellen R. Sauerbrey, quoted in "More North Korean Refugees Welcome, State Official Says", *Baltimore Sun*, 21 June 2006; "US Official to Examine Refugee Issues in Thailand", KBS Global News, 23 August 2006.

<sup>248</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영국관료, 2006 년 3 월.

<sup>249</sup> "North Korean Refugees Head for Europe", Radio Free Asia, 28 February 2006.

독일은 과정에 대한 관찰할 기회를 준다. 독일거주중인 북한국적자 1,900 명 중에서 거의 300 명이 망명을 지원했다. 2005 년에 10 명도 안 되는 사람이 지원했었다.<sup>250</sup> 난민지위는 획득하기 극히 어렵다. 군인배경인 탈북자만이 인정되었다. 결과적으로 10 명도 안되는 사람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보통 망명지원이 부인되면 지원자는 고국으로 추방되지만 피추방자의 삶이 위험해 질 나라로는 추방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실패한 지원자는 임시지만 갱신할 수 있는 3 년의 체류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고국의 상황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sup>251</sup> 탈북자들이 유럽에 건너간 수단에 대해서는 추측할 뿐이다. 그러나 한 이야기에 따르면 남한여권을 구한 한 가족이 유럽으로 날아가고 여권을 버렸다고 한다.

### D. 일본

일본<sup>252</sup>은 약 100 명의 탈북자를 조용히 받아들였다.<sup>253</sup> 2003 년까지 탈북망명자를 받지 않았지만 일본인 긴급구호 활동가 2 명이 체포된 이후 정책을 바꾸었다. 지금은 1950 년 말 조선족 대이동시기에 일본을 떠났던 사람만 인정하고 있다. 약 100,000 명이 그 당시에 떠났다. 후손까지 포함하면 오늘날에는 300,000 명이 될 수도 있다. NGO 의 도움을 받아 일본인-북한사람은 그들이 일본을 떠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외교부에 보낸다. 신청이 받아들지면 외교부는 북경주재

---

<sup>250</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독일관료, 2006 년 9 월 15 일.

<sup>251</sup> Ibid.

<sup>252</sup> 일본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제위기감시기구 아시아 보고서 N°100, *일본과 북한: 불화의 초점* 참조.

<sup>253</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서울, 2006 년 5 월.

대사관 관리에게 명령하여 망명자의 출발을 협상한다. 일본정부는 한번도 몇 명을 받아들였는지 밝힌 적이 없다. 2005 년 3 월 한 남한신문이 2004 년말까지 140-150 명이 받아들여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은 오로지 일본과의 연계가 있다고 밝혀진 사람만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sup>254</sup>

## VII. 결론

이번 보고서에서 토론했던 인도주의이슈에 대한 우선적 책임은 물론 북한에 있다. 북한이 그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인권과 시민의 근원적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다. 정권의 성격과 내부적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놓고 볼 때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국제위기감시기구가 북한에게 제안한 권고사항에는 최소한의 낮은 단계들로 한정하였다. 가령, 중국으로의 여행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늘리는 것을 포함한 여행자유화,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가족간 방문 허용 및 특별식량 배급, 불법월경을 시도한 사람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의 완화 등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수단들은 체제의 기본적인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서도 상대적으로 쉽게 시행 가능한 것들이다.

중국은 역시 북한난민과 망명자 인권 향상에 핵심국가이다. 그러나 중국의 광범위하게 비판당하는 인권기록, 내·외부 안정을 관리하기 위한 우선순위, 북한과의 가까운 외교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 좀 더 긍정적 중국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정부는 점차 망명자를 잡아 강제송환해오고 있으며 조력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공관으로 진입하는 탈북자를 처리하는데 있어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철조망을 한층 더 올리는 것 말고 다양한 수준의 자유를 다른 국가들에게 허용해야 한다.

중국은 특히 2008 년 올림픽과 관련하여 세계의 이목이 중국의 처신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건한 수단을 제안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진입해야 한다.<sup>255</sup> 중국시민권자와 결혼한 북한

<sup>254</sup> 강국진, “장벽 높이면서 난민보호 이중잣대”, *시민의 신문*, 2005 년 3 월 14 일.

<sup>255</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인터뷰, David Hawk, 서울, 2006 년 10 월 10 일.



여성과 그들의 자녀가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조건부 거주를 허가하는 것은 중국 농촌에 신부부족 현상을 볼 때 중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가라오케 술집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탈북여성에 대한 심한 착취를 단속하는 것이야말로 약자의 안전을 증대하고 중국이미지를 쇄신하는 또 다른 대안이 된다.

### A. 망명하기

중국과 제 3 국의 모든 탈북자들은 강제송환과 뒤이은 북한에서의 처벌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951 년 난민협약과 1967 년 의정서의 회원국인 중국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중국은 아직 국내 법적체계가 완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방과 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하고 자국내의 망명희망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sup>256</sup> 더군다나 중국은 UNHCR 과의 1995 년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1995 년 합의는 협력을 확보하고 난민협약의 명령과 협약 당사자는 해석과 적용상의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구속력 있는 재판에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을 재차 확인하기 위함이다.<sup>257</sup>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용국가의 선의에 궁극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UNHCR 은 공식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고 있다.

심지어 많은 NGO 와 정부들이 중국의 국제법 위반을 비난했을 때에도 UNHCR 은 중국 내의 탈북자문제에 조심스런 자세를 취했다. 탈북자를 단지 관심대상으로 인정하고 월경자를 경제이주자로 보고 강제송환의 대상으로 보는 중국 관료들과 합의점을 모색했다.<sup>258</sup>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2006 년 3 월 베이징을 방문하고 “모든 것”에 대한 “솔직하고 열린” 토론을 한 후 장래를 낙관했다. 중국은 UNHCR 과 협력하여 국내 망명시스템을 위한 법률기관을 신설키로 했었다. 중국은 지금 약속을 이행할 때이다.<sup>259</sup>

중국정부가 탈북자의 공식 망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강제송환만은 그만두어야 한다. UNHCR 은 중국을 압박하여 이 문제에 대한 의무이행을 약속 받아야 한다. 최소한 중국이 그러한 의무를 받아들일 때까지 인근국가들은 중국에서 건너온 탈북자를 다시 중국당국으로 송환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대신 남한정부는 UNHCR 에 연락해야 한다. 북한망명자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 남한, 미국, 일본, 그리고 다른 모든 정부들은 중국, 버마, 라오스, 베트남으로의 접근권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인권에 대해 가장 말이 많았던 미국과 EU 는 좀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남한정부는 중국과 제 3 국에 발이 묶인 탈북망명자를 돕는 데에 더욱 적극적인 하지만 조용한 역할을 해야 한다.

남한정부와 UNHCR 은 관련된 모든 국가들, 특히 몽골,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버마,

<sup>256</sup> See Appendix C below. 중국은 UNHCR 집행위원 회 회원이고 경제 사회, 문화적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권리협약, 고문방지협약 등을 비롯한 인권조약을 승인했다.

<sup>257</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이메일 인터뷰, 2006 년 10 월 16 일 UN 공식; 중국 UNHCR 지역사무소 UNHCR 공관 개선에 관한 협정, UN Treaty Series, Vol. 1898/1899, I-32371, pp. 61-71; 1951 Convention on Refugees, op. cit..

<sup>258</sup> For more on the UNHCR's assessment of the protection needs of North Koreans in China, see Appendix C below.

<sup>259</sup> High Commissioner's Statements, UNHCR Press Release, 23 March 2006; “China: Guterres Meets with North Korean Refugees on Visit to China”, *Lusa*, 23 March 2006 (in Portuguese).

태국 등과 협력하여 표준절차, 즉 탈북자를 제 3 국에서 장기적 정착지까지 데려오는데 4 개월 이상 걸리면 안된다는 기한제한 등을 시행해야 한다.<sup>260</sup> 난민 재정착프로그램에 오랜 경험이 있는 미국과 EU 는 남한이 대부분의 탈북자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정착프로그램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sup>261</sup> 탈북자는 특히 재정착 교육전문기관에 의한 프로그램의 종류와 시간연장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다.<sup>262</sup>

탈북자를 구급하거나 이들이 재정착한 나라들은 여성문제와 정신적 건강 이슈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 제 3 국에서 활동하는 NGO 와 교회 단체가 그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재정착국가로의 망명자이동에 대한 합의된 예정을 놓고 볼 때 이러한 단체들은 더 많은 지지를 받아야 하고, UNHCR 에 집을 등록하고 탈북자를 수용하게 한 다음, 마지막 이동을 기다리도록 해야 한다. 태국은 유용한 모델을 보여준다. 인근 국가들은 모두 너무 많은 뇌물을 요구한다. 남한정부를 시작으로 정부들은 숨거나 탈주 중에 있는 탈북자의 인도주의 필요를 충족하는 약속을 재개해야 한다.

## B. 중국에 숨 실 공간 마련하기

중국당국은 일단 입국한 탈북자에 대한 정책 초점을 추방에서 보호로 바뀌어야 한다. 더 많은 자원이 인신매매를 예방하는 일에 쓰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과 아동매매와 아동 성매매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가입했고, 지금 사업장에서의 착취와 매춘을 단속해야 한다. 인신매매 신고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을 늘리고 탈북자 송환을 중단해야 한다. 약자인 여성들은 중국에서 벗어나 그들의 욕구를 해결할 재정착 프로그램으로 옮겨져야 한다. 중국과 수용국가들은 유니세프,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마약범죄국(the UN Office on Drugs and Crime)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지와 조정 혜택을 받아야 한다.

중국시민권자와 결혼한 여성과 그들의 아이들은 망명자와 무국적자의 재정착을 위한 건강한 국내 법체계가 세워질 때까지 잠정적 주거권이 주어져야 한다. 교육권 등 아동의 기본적 권리들은 1990 년 중국이 승인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 중국과 이웃국가들은 의료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탈북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NGO 활동가들을 체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주민이 중국에 사는 그들 친척을 더 자주 합법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북한당국을 격려해야 한다.

송환되면 겪게 될 궁핍을 이유로 중국에서 난민 이 되고자 하는 탈북자의 참상은 중국 당국에게 압력을 가해 실상을 바로잡기 전까지는 악화될 것 같다. 북한인권문제에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미국, EU, 일본이 중국이 올바른 일을 하도록 설득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탈북자 들은 계속해서 실제로 보이지 않게 고통 받을 것 이다. 관련된 정부들 역시 북한난민을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는 그들의 약속과 결의안을 이행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그들의 돈을 필요한 곳에 투여 할 때가 되었다.

<sup>260</sup> 새터민의 도전은 국제위기감시기구 보고서의 다음 주제가 될 예정이다..

<sup>261</sup> "Welcome to the 21<sup>st</sup> Century: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Refugees International, 16 December 2003.

<sup>262</sup> 국제위기감시기구 이메일 인터뷰, Karin Lee,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2006 년 9 월 25 일.

## 부록 A

### 북한 지도



부록 B

동아시아 지도



## 부록 C

### 난민법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 A. 난민의 추방과 송환금지 원칙과 망명희망자

1951 년 난민협약 제 31 조 "추방과 송환 금지(refoulement)"는 다음과 같다: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체약국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는 이 규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sup>263</sup>

추방과 송환금지 원칙은 난민보호에 근원적이며 본 협약과 의정서의 비체약국에게도 구속력이 인정되는 국제 관습법으로 간주되며 이는 UN 결의안에서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되었다<sup>264</sup>. 이 원칙은 망명자와 난민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sup>265</sup>

“망명희망자”는 UNHCR 이 외국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용어이다. 그들은 난민으로의 인정을 지원할 수 없거나 하지않았을지라도 “국제적 보호와 UNHCR 의 관심을 필요”로 할 수 있다.<sup>266</sup>

추방과 송환금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망명자 또는 난민을 그들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에 처할 곳으로 송환하지 않고;
- 망명자 또는 난민이 자국으로 돌아가면 생명과 자유가 위태로울 우려가 있을 때 비록 그들이 밀항하거나 인신매매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방해 받아서는 안 되며, 그리고
- 박해를 피해 다른 국가의 국경에 도달한 사람에게 그 국가의 영토로의 접근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망명에의 접근)<sup>267</sup>

<sup>263</sup> 1951 Convention on Refugees, op. cit.

<sup>264</sup> For a list of those resolutions, see the UNHCR web site, at <http://www.unhcr.org>.

<sup>265</sup> “Non-Refoulement”, Executive Committee of the UNHCR, no. 6 (xxviii) 1977.

<sup>266</sup> “UNHCR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op. cit.

## B. 탈북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UNHCR 의 평가

UNHCR 사무소는 중국과 제 3 국의 탈북자를 관심대상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포괄적 용어로서 UNHCR 이 관심있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묘사할 때 쓰인다.<sup>268</sup> 관심대상은 망명자, 난민, 무국적자, 국내피난민과 귀국자이며 반드시 여기에 제한될 필요는 없다.<sup>269</sup>

탈북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UNHCR 의 평가는 1951 년 난민협약 제 1 조 A (2) 단락 2 의 해석에 기인한다: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의 경우에, 국적국이라 함은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말하 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기초한 정당한 이유없이 어느 하나의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아니 하였다면 당해자에게 국적국의 보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sup>270</sup>

UNHCR 이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탈북자는 국제적 보호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남한이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의 시민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이중 국적자가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는 남한의 보호를 받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기초한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비록 탈북자들이 보호가 필요한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남한정부로부터 오직 이론적 보호만을 받을 수 있고, 실재로는 종종 불가능할지라도 UNHCR 은 국가적 보호의 유용성이 국제적 보호에 우선한다<sup>271</sup>고 본다.

남한정부가 일반적으로 남한사람에 부여하는 보호를 북한사람에게도 확장하는 한 남한국적은 북한사람들에게도 유효하다. 보호요청이 거절되거나 무시될 때까지 남한국적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sup>272</sup>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진 국가에 도달한 사람들은 곧 남한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과 제 3 국에 체류 중인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보호요청조차 할 수가 없다. 자유, 안전, 심지어 생명에 위협이 있는 수천명의 탈북자들이 매년 경비가 삼엄한 외교공관에 진입하거나, 2~3 국가를 건너 망명을 요청하거나 남한행을 요구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하지 않더라도, 개인적 신분보장을 신청하는 것은 각각의 장점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모든 탈북자가 합당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sup>267</sup> Ibid.

<sup>268</sup> "UNHCR/Inter-Parliamentary Union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No. 2, Refugee Protection: A Guide to International Refugee Law", 2001, Annex 2, "Glossary of Key Protection-related Terms", p. 131, available at <http://www.unhcr.org/publ/PUBL/3d4aba564.pdf>.

<sup>269</sup> Ibid.

<sup>270</sup> 1951 Convention on Refugees and its 1967 Protocol, available at <http://www.unhcr.org/protect/3c0762ea4.html>

<sup>271</sup>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UNHCR, Geneva 1992, Chapter II, Section B, paragraph 106.

<sup>272</sup> Ibid, Chapter II, Section B, paragraph 107.

반체제자에 대한 박해를 고려할 때, 종교인, 반동계급, 월경자, 범죄자는 국제적 보호를 받을만한 경우이다.

재중 탈북자는 국제적 보호에 대한 정당한 주장을 명료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UNHCR 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조사자가 공포스런 박해에 대한 원인 또는 원인들을 확인하고, 1951 년 협약상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한다”고 인정했다.<sup>273</sup>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들의 권리와 유용가능한 선택권들에 대해 조언받아야 한다.

#### 난민으로서의 탈북자

1951 년 협약상의 일반적 정의에 따르면 난민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다.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常住)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sup>274</sup>

UNHCR 의 난민지위와 관련하여 1951 년 협약과 1967 년 의정서 규정에 따른 난민지위 결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에 관한 핸드북(*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이 강조한 것을 보면 박해에 대한 충분한 이유있는 공포는 난민신청에 있어 지배적 동기여야 한다.<sup>275</sup>

박해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니라 굶주림과 가난 때문에 조국을 떠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박해는 한 사람이 조국을 떠나야 하는 경제적 빈곤의 조건들을 조성할 수 있다. “경제 대책이 특정인구의 경제적 존재를 파괴하면 희생자들은 여건에 따라 국가를 떠나 난민이 된다”고 UNHCR 은 인정한다.<sup>276</sup> 북한은 시민을 핵심, 동조, 반동계급으로 구분한다. 반동 또는 동조 계급 그리고 북조선-일본인으로 분류된 사람은 계통상으로 고용과 교육기회가 부인되며 박해에 이르는 차별에 고통 받는다.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sup>277</sup>

<sup>273</sup>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op. cit.

<sup>274</sup> Article 1 A (2) of the 1951 Convention on Refugees.

<sup>275</sup>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op. cit.

<sup>276</sup> Ibid.

<sup>277</sup> For details on discrimination amounting to persecution, see *ibid.*

북한은 종교와 정치적 자유를 부인한다.<sup>278</sup> 반대되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을 지닌 사람들은 오랜 감옥살이, 강제 노동, 또는 처형에 직면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감히 정권에 저항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한된 사람만이 박해를 피해 피난을 가고 1951 년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 인정된다.

특정범죄를 저지른 북한사람들은 귀환함과 동시에 그들 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의 형태로 박해받을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난민의 자격이 될 수 있다. “조국에 대한 배신”과 “폭언과 주체사상에 대한 추가학습에서부터 긴 감옥살이와 처형에 이르기까지 예견이 불가능한 범주의 형벌”에 대한 임의적 정의는 난민지위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 그러한 불분명한 사법제도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자주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와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채지 못한다. 예를 들면, 외국방송 청취에 대한 사실 인정은 그 자체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소문과 허위 고발에 근거한 죄목 추가는 무거운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

외국방송 청취, 자식들과 자신의 종교적 신념 공유, 또는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음식, 옷, 의약품, 기타 물품에의 접근과 같은 “범죄”에 대한 강제노동 또는 감금형에 공포를 가졌기 때문에 나라를 떠난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남한의 친인척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일부 북한주민들은 북한을 떠난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보안대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기 때문이다.<sup>279</sup>

북한사람들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에 근거한 박해로부터 피난 갔을 때, 불법 출국 또는 자국 밖의 국가에서의 허가 없는 체류에 대하여 그들이 직면하는 심한 처벌은 그들의 난민지위를 결정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지침이 된다. 출생 도시 밖의 국내여행을 제약하는 나라에서는 국제여행 허가받기란 무척 어렵고, 그러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다. 허가없이 북한을 떠난다는 것은 최고 2 년의 감옥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다.<sup>280</sup>

### C. 관심대상으로서의 탈북자

북한주민들은 그들의 법적 지위나 북한을 떠날 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중에 위에 언급한 난민이 될 수 있다. 그 경우 그들은 관심대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UNHCR 은 “사람은 부재중 본국에 발생한 상황 또는 이미 인정된 난민과의 어울리는 것, 상주국가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 등과 본인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관심대상이 된다고 기술한다.<sup>281</sup> 본인 스스로의 행위가 박해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를

<sup>278</sup> David Hawk, “Thank You, Father Kim Il-Sung: Eyewitness Accounts of Severe Violations of Freedom of Conscience, Thought, and Religion in North Korea”, U. 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November 2005.

<sup>279</sup> Crisis Group interview, northern Thailand, June 2006.

<sup>280</sup> Lee Keum-soon,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tudies Series May 2006

<sup>281</sup>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op. cit. See also the European Union’s “Joint Position Defined by the Council on the basis of Article K.3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on the Harmonized Application of the Definition of the Term



정당화하는지 결정할 때, 특히 그러한 행위를 원적(原籍)국가의 당국이 인지했는지와 당국이 어떻게 평가할 것 같은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sup>282</sup>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남한사람이나 기독교인과 어울리기 또는 특정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북한이주민이 박해의 정당한 공포를 갖게 하고 관심대상이 된다. 불법적 월경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북한 사람들은 반동계급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처음에는 경제적 또는 개인적 이유로 월경했다라도 귀환하면서 박해의 정당한 공포를 갖게 될 수도 있다. 모든 행위들이 조건없이 발견되거나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사법제도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의 공포를 알잡아 볼 수 없다. 모든 사건은 각각의 장단점에 근거해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으로 송환된 많은 이들이 월경자를 겨냥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 국경을 다시 건넌다.<sup>283</sup> 북한은 또한 극도로 가혹한 처벌을 언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사건의 경우는 고문을 하기도 한다. 중국 국적자에게 인신매매 당하거나 결혼한 여성은 배반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sup>284</sup> 송환을 앞둔 임신부는 특히 보호가 절박히 필요하다.<sup>285</sup>

#### D. 중지와 지속적 보호의 필요: 자발적 귀환?

북한난민은 남한과 같은 새로운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 국제적 보호를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다. 그들은 현재 살고 있는 국가나 자발적으로 귀환한 후 고국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는다. 난민신분 중지의 핵심은 자발적 난민의 행위, 고국의 보호를 받을 의도, 보호에 대한 실질적 응낙에 따라 결정된다. 요약하면 여건에 변화가 있어서 박해에 대한 공포가 아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많은 탈북자들은 귀환을 택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국제적 보호의 필요 상태에 있다. 박해때문에 고향을 떠났던 탈북자들은 종종 귀환하여 더 심한 박해를 받는다. 이러한 귀환은 고국의 보호아래로의 자발적인 진정한 귀환과는 구별된다. 일부는 중국에서 보호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호를 제공할 국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귀환한다. 비밀 귀환은 성공한다면 폭언, 감옥 또는 강제송환에 뒤따르는 더 심한 형태의 박해로부터 최소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일부는 그들의 행위가 발각되지 않거나 가족들이 연좌죄 - 북한정부는 자주 적용한다 - 로 처벌받지 않았다면 귀환한다.<sup>286</sup> 귀환이 전과 같은 상황의 탄압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과 월경과 중국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죄에 대하여 박해 받을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

“Refugee” in Article 1 of the Geneva Convention of 28 July 1951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nex 1)”, available on the UNHCR website at <http://www.unhcr.org>.

<sup>282</sup> “Handbook on Procedures and Criteria”, op. cit.

<sup>283</sup> Crisis Group interviews, northern Thailand, June 2006.

<sup>284</sup> Hawk, “Hidden Gulag”, op. cit.

<sup>285</sup> Joel Charny, “Acts of Betrayal”, Refugees International, April 2005

<sup>286</sup> Crisis Group interviews, North East China, April-May 2006.

것을 의미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돌아가 식료품을 가족들에게 주기 위해 돌아간다. 이러한 결정이야말로 “자발적”의 정상적 의미에 속한다.

## E. 무국적

UNHCR의 권한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유관한 국제 협정서는 1954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과 1961년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이 있다. UNHCR은 무국적자를 도와 법적문제를 해결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한 국가의 국적자로서의 삶을 재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UNHCR은 또한 법적·기술적 조언을 통해 국적문제에 대해 정부에게 조언한다. 이에는 무국적 상황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국적관계법 제정과 시행을 돕는 일이 포함된다.<sup>287</sup>

북한여성과 중국 국적자 사이의 아이들이 바로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일부는 아버지의 이름아래 중국가족등록제도에 기록한다. 그러나 이러기 위해서는 관리에게 뇌물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숨어 지낸다. UNHCR은 중국정부와 협력하여 망명자를 위한 국내 법률체계를 개발하면서, 무국적 아동과 이들 어머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가정 폭력을 포함하는 성폭행 문제를 해결할 통합된 국가전략을 개발할 의무를 명심해야 한다.<sup>288</sup> 무국적 아동의 어머니들은 또한 제 3국에서 망명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자신들과 그들 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sup>287</sup> “UNHCR and International Protection”, op. cit.

<sup>288</sup> “Five Commitments to Refugee Women: Women, War, Peace, and Displacement”, UN Development Fund for Women, 8 July 2004.